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93 1982년 8월5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August 5, 1982

AUG 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중앙 한인교회 우승

거듭된 역전끝에 연합에 15 : 9
한인회야구대회, OB전은 천주교로

역전 또 역전끝에 7회초 대거 7점을 올린 중앙한인연합교회가 연합교회팀을 물리치고 한인회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 31일과 1일 양일간 CNE옆 코로네이션구장에서 열린 한인회야구대회는 대표팀 12개, OB(Old Boys) 5개팀이 참가, 대표팀에서는 중앙한인연합교회가, OB팀에서는 천주교 대건회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2일간 열전의 막을 내렸다.

1일 하오 6시 속개된 A조 예선 우승팀인 중앙한인팀과 D조 우승의 연합교회팀의 결승전은 그야말로 용호상박의 혈투.

1회초 최우수선수상의 이상열, 투수상의 최성현타선이 이끄는 한인팀이 대거 5점을 올리자 연합팀은 이번 대회 타격상의 이두회선수를 선두로 1회 3점, 2회 2점을 추가 5:5 동점의 행렬을 이었다. 4회초 한인팀이 1점을 추가하자 연합팀은 곧이어 3점을 추가, 역전시켰으나 한인팀이 6회초 2점을 얻자 다시 8:8 동점이 됐다.

6회말 1점을 올려 다시 리드를 잡은 연합팀은 우승에의 기대를 안은채 마지막 7회로 넘어갔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의 이상열선수를 중심으로 한 한인의 타선이 7회초 폭발, 타자가 일순하면서 대거 7점을 추가, 연합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리고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30세이상 노장들이 중심이 된 OB조에서는 전날 강력한 우승후보인 해병대팀을 따돌린 천주교 대건회가 김봉환 투수의 대활약으로 연합교회팀을 13:6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예선전과 준결승이 벌어진 대회 첫날 31일에는 선수, 응원단등 교민 천여명이 몰려 열기를 더했다.

12개팀이 4개조로 나뉘어 리그전으로 치른 예선전에서는 A조 중앙한인연합교회, B조 마이티(한인교회 중심), C조 미도파, D조 연합교회가 각각 2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대표팀전과 OB전에 각각 팀을 내보낸 연합교회는 양쪽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전적과 개인상은 다음과 같다.

◆대표팀

○예선전(리그)

A조: 중앙한인연합교회(2승-우승), 자이안트, 화랑

B조: 마이티(2승-우승), 청솔, 동부장로교회

C조: U of T, 태백, 미도파(2승-우승)

D조: 연합(2승-우승), 새한, 플레이어스

○준결승

중앙한인 6 : 4 마이티

연합 13 : 7 미도파

○결 승

중앙한인	연합
5	3
0	2
0	0
1	3
2	1
7	0
15	9

◆OB전

A조: 동부장로, 연합(2위), 천주(1위)

B조: 해병대(1위), 베델교회(2위)

○준결승

천주(승):해병대(패)

연합(승):베델교회(패)

○결 승

천주 13 : 7 연합

◆개인상수상자

▲대표팀전

★최우수선수상: 이상열(중앙한인)

★투수상: 최성현(")

★타격상: 이두회(연합교회)

★감투상: 박세영(마이티)

★미기상: 정철주(미도파)

▲OB전

★최우수선수상: 김봉환(천주교)

★감투상: 이인모(해병대)

★미기상: 국승웅(연합교회)

◆예선에서 자이안트와 분투하는 화랑팀선수들.

세계경제의 촛점이 모아질 토론토

IMF • WB총회 9월6일~8일
한국등 156개국 대표12,000명 운집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12,000명 인사가 오는 9월6일부터 3일간 토론토에 집결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IBRD)의 연례총회가 열리기 때문.

본회의가 열릴 시청앞 쉐라톤•센터호텔은 경비가 삼엄함은 물론 회의가 열리는 3일간 리치몬드•스트릿은 아예 이 총회참석자 전용으로 해줄것을 요청받았다고 시의회가 4일 말했다.

리무진만도 4백대, 일류호텔방 4천개가 동원될 이번 총회의 접대 총책임을 맡은 메트로•토론토 대회 및 방문객협회의 매니저 조세핀•스미드여사는 회교국 대표인 족장 1명과 그 일행이 묵을 침실 8개가 딸린 호텔방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으며 마침내 찾아냈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와 IMF 정책운영방안에 관해 토의할 이번 총회에 한국 대표로는 재무장관,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환은행장, 장기신용은행장을 비롯 1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해는 워싱턴에서, 이듬해는 156개 회원국중 한 곳에서 개최되는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캐나다는 79년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애초에는 몬트리얼이 유력지로 등장했으나 토론토로 낙착됐다.

3일간의 대회동안 연방경비 $5만불 비롯, 총 $2천만가 소모될 것이므로 토론토로서는 큰 대표들이 뿌리고갈 외화만으로도 한몫 노릴 수가 있게 된셈.

경비는 연방경찰(RCMP), 온타리오주 경찰(OPP)및 메트로 경찰이 합동으로 담당하며 총회기간동안 토론토 다운타운 전역에 삼엄한 경계가 펼쳐질 것이다.

◆경제용어 해설◆

◆국제통화기금(IMF)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45년 발족된 것으로 80년4월 중공의 가입으로 자유중국이 축출됐으며 현재 회원은 156개국.

(1)국제통화의 협력과 국제무역 확대로 소득의 증대를 꾀하며, (2)환율의 안정, (3)가맹국간의 다면적 결재제도의 확립과 환제한 폐지, (4)자금이용에 의한 국제수지개선, (5)단기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각국 대표및 대리1명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연1회 개최되며 한국은 55년 가입했다.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로 불리는 세계은행은 IMF와 동시에 설립, 47년 유엔전문기관으로 됐다. 개발도상국의 부흥을 위해 저리로 장기대부를 함으로써 평화경제를 이룩함을 꾀한다. 한국은 55년 가입했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미국무성 검토중
태평양회담 제안

(워싱턴3일=연합)미국이 전두환대통령의 태평양 연안국정기정상회담 제안에 관해 검토하겠다고 미국무성이 3일 정식으로 발표했다.

노만•반즈 국무성대변인은 "전대통령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며,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견해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즈대변인은 이미 공산진영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대통령의 제안에 관한 반응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3번째 한국계 은행으로 토론토에 연락사무소를 둔 조흥은행이 3일저녁 개소식과 아울러 기념리셉션을 가졌다. 조흥은행은 앞으로 2년내 시중은행 업무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좌로부터 박인순한인회장, 이상훈총영사, 조영호노인회장, 정석인뉴욕지점장, 이원순토론토사무소장, 조사역, 최은용(토론토사무소).

◆지난2일 리치몬드힐즈골프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린 제2회 실협친선골프대회. 이날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박영철부총영사, 이기훈씨, 토론토•선의 매니저 빌•브릭씨가 78점 동점을 기록, 연장전(SUDDEN DEATH PLAY OFF)을 실시한것이다. 사진은 연장전 시작전 필승을 다짐하는 세선수. 왼쪽부터 브릭씨, 이기훈씨, 박부총영사.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5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란 곰 화 장 품
대 리 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 국 선 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축

"전두환 대통령 캐나다
공 식 방 문 환 영"
승공문화협회

East AsianLibrary
Rm 0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PLO 목죄는 이스라엘탱크

협상진전없자 서베이루트 심장 진격

(베이루트)포부대의 엄호를 받은 이스라엘 탱크부대가 4일 새벽 서베이루트를 진격해 들어감으로써 미국의 전투즉각중지요청은 헛소리가 돼버렸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6천명이 서베이루트에서 무장철수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동안 3일 PLO대표 야세르·아라파트가 이스라엘이 휴전조약을 엄수하지 않는한 철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오랫동안 예상돼온 지상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탱크부대가 수백마일 진격해가는 동안 팔레스타인측의 저항은 미미했다.

탱크부대는 PLO게릴라들이 쌓아올린 방어용 칸막이들을 밀어부치며 아랍말로 "철수하라. 비행기가 금방 올것"이라고 확성기로 소리쳤다.

탱크부대의 진격은 「팔」게릴라 부대와 민간인 주거지역을 분리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측 소식통은 베이루트 남쪽및 북쪽으로 진격한 탱크부대는 격심한 포격전을 벌였다고 전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본국의 명령을 받고 주니에로 철수한 데오도르·아르칸드 주 레바논 캐나다대사및 6명의 대사관 직원은 현재 한 호텔에 묵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행위를 맹렬히 비난하는 서방외교관의 하나인 아르칸드대사는 "팔레스타인이 1명도 없는 건물에다 포격을 퍼붓고, 애매한 레바논 어린이, 부녀자들을 살상하는 행위는 규탄되야 한다"고 4일 말했다.

유엔통계, 1분 146명 늘어

세계인구 2110년에 105억

세계의 인구수가 1분당 1백46명, 시간당 8천7백90명, 하루에 21만9백50명, 1년에 7천7백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전쟁, 굶주림과 피임약의 개발에도 불구,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재 46억인 세계인구는 지금 상태로 불어날 경우 2040년도에 80억, 그리고 2110년도에는 1백50억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프리카인구는 향후 25년안에 두배이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유엔인구조사국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유럽의 5%이며, 아프리카가 70%로 가장 높다.

다음이 라틴아메리카의 45%, 아시아 39%인데, 80년도 현재 인구10억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공은 20%가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 대도시의 인구증가율은 멕시코시티가 107%로 가장 높아 2천년대에 3천1백만명으로 불어날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다음이 중공의 상해로 2천5백80만명(91%증가), 동경-요꼬하마 2천3백70만(19%), 뉴욕시 2천2백40만(11%), 북경 2천90만(83%), 리오데자네이로 1천9백만(78%), 봄베이 1천6백80만(102%), 칼카타 1천6백40만(86%), 자카르타 1천5백70만(115%)의 순서로 이어진다.

미국타이어 "칼라일"

한국산 덤핑에 밀려

미국 유일의 자전거 타이어 제조업체인 칼라일타이어회사는 한국및 대만산 타이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29일자 비지네스란을 통해 보도했다.

지난 1970년 칼라일타이어회사, 유니로얄주식회사, 굿이어타이어회사에서 제조되던 미국산 자전거 타이어는 주로 값싸고 질좋은 한국산및 대만산 타이어 때문에 현재에는 칼라일타이어회사만이 자전거 타이어와 튜브를 생산하는 실정이라고 동지는 밝혔다.

미국인구 6.2% 외국출생

10.9% 영어아닌 모국어

미국 인구의 6.2%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며 10.9%가 영어 아닌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1980년 인구조사 결과 분석중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외국 출생자가 가장 많은 곳은 마이아미 지역으로 인구 162만6천명중 35.2%가 외국계이며 시민 반수에 가까운 42.8%가 영어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은 인구 747만8천명인 로스앤젤리스 지역의 21.6%가 외국계이며 30.9%가 영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샌 안토니오지역(텍사스)은 인구 107만2천명중 외국 출생자는 6.9%밖에 안되지만 42.5%가 외국어(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다.

시카고지역에서는 인구 710만명중 10.8%가 외국 출생자이며 17.0%가 영어외의 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聖鍾 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41>

殺意斷層 ⑧

문자는 모세가 무서워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럴때 남편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녀는 목이 아프도록 마른침을 삼키면서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도대체 저놈은 어떻게 돼먹은 인간일까. 사람의 피를 이렇게도 말릴수가 있을까. 너무불안한 나머지 뜨거진 것만 같았다. 그때 그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박무자여사!』

그녀가 가만있자 그는 더 크게 불렀다. 누가 들을것만 같아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욕실문 앞에 섰다.

『안으로 들어와서 몸을 씻어줘.』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그의 요구에 응해주고 그를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녀는 욕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옷을 벗고 들어와.』

결국 그는 그가 시키는대로 했다.

그는 둥근 플래스틱 의자위에 앉아 있었다. 문자는 수건에 비누칠을 한다음 사내의 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다시 시킬거야.』

이건 단순히 돈을 뜯는 정도가 아니다. 이자는 나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 내 피를 말리고 나를 공포에 떨게 하다가 내가 마침내 쓰러지면 그때서야 물러나겠지. 악마중의 악마.

"목욕이 끝나자 그녀를 끌고 침대로…

『수건은 치워.』

그녀는 시키는대로 그의 몸구석구석을 손으로 문질렀다. 목욕이 끝나자 그녀를 끌고 침대위로 올라갔다.

『안돼요! 여기서는 안돼요!』

그녀가 몸부림쳤지만 모세는 들지 않았다.

『까불지 말고 가만있어.』

『아, 안돼요! 남편이 곧 온댔어요! 안돼요.』

『오면 오라지.』

아무리 애걸해도 소용없었다.

『이거 더 스릴있고 좋지 않아. 자, 힘을 내라고.』

그녀는 눈을 감아버렸다. 감긴 눈 사이로 눈물이 번져나왔다. 흘러내린 눈물이 시트를 적셨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려왔다.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다.

『전화 왔어요. 전화를 받아야 해요.』

『그대로 가만있어.』

그는 거친숨을 내쉬며 계속 그녀를 놔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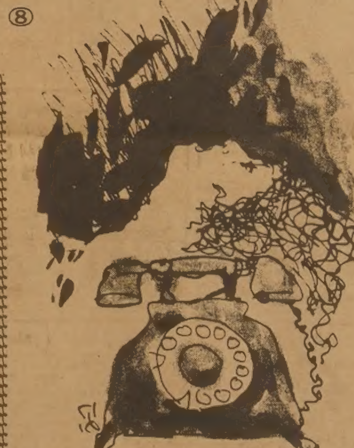
전화는 한참동안 울리다가 멎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남편이 부르는 소리 같았다. 여보, 뭐 하고 있는거야? 뭐하고 있는거야? 뭐 하고 있는거야? 이욕고 있는거야?

전화벨소리는 안타까운 여운을 남기면서 끊어졌다.

한참이 지난뒤 그녀의 몸은 그가 흘린 땀으로 흥건히 젖어있었다. 그녀는 너무 불안했기때문에 아무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제발 가세요.』

『내가 가고싶을때 가는거야.』



朴 男 그림

퀴즈를 통해

캐나다를 압시다 ②

◉"토론토"란 말의 뜻은?

토론토는 인디언 말로 "만남의 장소", "풍부한 땅"이란 뜻이다.

◉캐나다원주민으로서 캐나다 총독으로 임명된 최초의 사람은?

빈센트·매씨(Vincent Massey), 1952년 총독에 임명됐다.

◉세계최초로 살아남은 다섯쌍둥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는데?

다섯 쌍둥이는 1934년 5월28일 온타리오주 캘렌다 부근에서 태어난 디온 5자매로 현재 이들중 3명만 생존해 있다.

다섯 쌍둥이가 살아 남을 확률은 57,000,000 : 1.

언론의 법석에 시달려온 이들 자매는 몬트리얼 교외에서 일절 인터뷰를 거절하며 산다.

록 그룹 게스·후 위니펙 출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은?

캐나다의 로렌샹산맥.

◉어릴때 심장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으면서 1928년 암스텔담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타낸 캐나다의 육상선수는?

현재 뱅쿠버에서 보험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는 퍼시·윌리엄즈로 금년 75세이다. 그는 1백미터, 2백미터 달리기에서 우승했다.

◉세계최대 규모의 연례박람회는?

토론토에서 열리는 CNE (Canadian National Exhibition).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는?

영 스트릿. 길이는 1896.8 킬로미터이다. 토론토의 영·스트릿 1번지인 「토론토·스타」 빌딩에서 시작, 북쪽으로는 마니토바주와 미국 미네소타주와 접경을 이루는 레이니강까지 뻗쳐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하이웨이는?

캐나다횡단도로인 트랜스·캐나다 하이웨이로 총 4,860마일이다.

◉전화, 당뇨병 특효약 인슐린, 컬럼비아 우주왕복선의 로보트 우주팔등은 캐나다인의 발명품으로 유명하다. 캐나다가 최초로 발명해낸 것들을 최소한 10가지는 말할 수 있어야 캐나다에 살 자격이 있다면?

1. 페인트칠하는 롤러.
2. 지퍼.
3. 어린이 영양이유식 패블럼(Pablum)
4. 개스방지 매스크
5. 인스턴트 매쉬드 포테이토
6. 냉동한 인스턴트 음식
7. 하키용 매스크
8. 자동 우편물분류기
9. AC 래디오·튜브
10. 신문용 해프톤 제작방법
11. 사진전송법
12. 전자올갠
13. 등유
14. 민간용 유전
15. 송유관
16. 무궤도 전차
17. 민간용 제트기
18. 워키·토키
19. 포켓용 휴지곽
20. 제설기

①캐나다에 최초로 발을 디딘 유럽인이다. 이사람의 이름은?

②캐나다 유일의 세계 헤비급 챔피언은?

③유명한 토론토 시장으로 그 손자는 더욱 유명하다. 누구일까?

◆사진퀴즈

④197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레코드·앨범이 팔린 록·그룹은? guess who (누구일까)?

⑤농구는 누가 창안했을까?

①서기 1천년경 래브래이도에서 겨울을 지낸 리프·에릭슨(Leif Ericson)이다.

②1906년 2월23일 20라운드에서 마빈·하트를 쓰러뜨려 세계 헤비급챔피언이 된 온타리오의 타미·번즈.

1908년 잭·존슨에 치명상을 입고도 계속 싸워 경찰의 저지끝에 챔피언쉽을 박탈당했다.

통산전적은 52승 5패 1추첨 1구조이다.

③윌리엄·리온·맥켄지로 1834년부터 2년간 토론토 초대시장을 지냈다. 그 손자 윌리엄·리온·맥켄지·킹은 제10대 캐나다 수상을 지냈다.

④70년 45개의 레코드를 팔아 세계의 다른 어떤 그룹혹은 가수보다 많은 세일즈를 기록한 그룹은 바로 캐나다 위니펙출신의 그룹 게스·후(Guess Who)이다.

⑤1891년 캐네디언 제임즈·나이스미스씨가 고안해냈다.

〈독자의 광장〉

사랑하는 어머니께

곽 영 자(토론토 거주)

"언니야, 어머니는 가셨어. 하늘나라가 보인다며 평화스런 모습으로 아주 곱게 가셨어. 그렇게도 소망이시던 하나님나라에 가셨으니 울지말고 감사만 하고있어. 지금 여기는 너무 더워서 발, 옮겨놓기도 힘들 정도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례가 준비됐으니 17일 오후 2시 잊지말고 거기서도 맘을 합해 장례예배드려줘."

어머니, 보고싶기만 하던 어머니의 운명을 서울의 막내가 이 못난 불효녀에게 전화로 이렇게 알려왔어요.

어머니의 한 생은 어쩌면 일본의 압박과 고통, 가난 바로 그거였어요. 남들이 미제가 좋다, 일제가 좋다, 외제품만 추켜세울 때마다 「원, 가난한 약소민족으로 태어나서 마음만 사치하니 한심하구나」, 「너희들은 절대로 일본인들이 만든것은 팔아주지 말아」, 「왜 저의 나라것은 안 알아주느냐」고 화를 내시곤 하셨지만 난 그때마다 "어머니, 일본사람 자체도 나쁘지만 그 옆에서 아첨하는 우리 민족이 더 나빠요. 그리고 그들은 상품을 신용있게 경제적으로 만드는데 뭐가 나빠요?"난 억지로 어머니의 뜻을 거역해 보다가 되게 혼났던게 바로 엊그제 같아요.

어머니 말씀과 생각은 모두 옳았어요.

어머니 곁을 떠난 6년간 "어머니는 더 많은 고생으로 몹시도 늙고 초라해지셨을테지." 상상만 하다가 미련한 이 딸은 생활에 얽매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나마도 못뵙고 말았읍니다. 그래도 날 용서하시고 평안히 가신 나의 어머니, 이명노 권사님.

어쩌다 어머니날에 흰 양말 한켤레 사다드렸는데 「내가 새것이나 신어서 뭘하느냐? 아무렴은 어떠냐? 구멍난것 신어도 마음편하게 해주는게 효녀다.」하신 말씀들이 구구절절 생각나는 오늘 어쩌면 내 가슴이 이렇게 아파오는지요.

누구나 다 가야할 그길.

아버지와 우리 6남매, 며느리, 사위, 손자녀 모두 27명의 식구를 남겨두고 행복하게 가신 나의 어머니.

막내까지만 시집보내고 눈감으면 좋겠다던 어머니는 그후로 10여년을 더 계셨지요. 난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그 자체가 겁이나서 생각조차 안했더랬어요. 그래서 장례예배날 입어야되는 검정옷 준비도 안해놔서 형님이 얼른 사다가 날 입혀줬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대로 인간과 하나님 모두에게 부끄럼없는 삶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겠어요.

어머니,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서 복된 하루 하루가 되시기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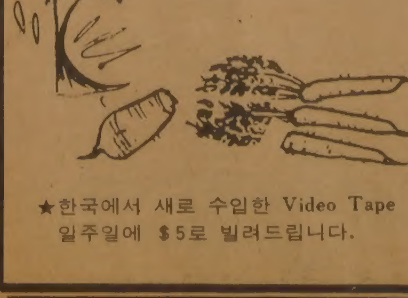
『79세에 세상떠나신 〈고국〉 어머니를 안타깝게 그리는 마음에서』

불효녀 올림.

삼복식품

삼복식품은 가장 품질좋은 상품만 골라, 가장 싼값으로 여러 분께 봉사합니다.
한번 들러주세요.

절대품질보장!
절대정직!
절대신용!



소면국수, 솔표겨자, 오뚜기 카레, 펭귄표 꽁치통조림, 펭귄표 고등어통조림, 맛있는 농심라면, 한국특산품 남해 김, 순 한국산 엿기름, 순 한국산 보리차, 순 한국산 메주가루, 순 한국산 고추가루, 맛있는 닭표 간장… 등등.

★한국에서 새로 수입한 Video Tape 일주일에 $5로 빌려드립니다.

주 소 : 2437 Finch Ave. W.
☎ : 743－8270 김 규 석

"토론토 교민여러분께"

2년만에 다시 찾아온 토론토에서 다시한번 두터운 모국애를 느꼈읍니다.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캐나다아이스하키협회 이종원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및 전교민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뒤에서 적극 밀어 주신 체육회 임원들과 고등부및 초·중등부하키팀 학부형, 응원나오신 교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많은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이번의 토론토방문을 한국하키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읍니다.

1982년 8월 5일

휘문고등학교 아이스하키팀
단장 김태식교장
캐나다동창회 강치영회장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제2회 실협친선골프대회>

그랜드챔피온에 빌·브릭씨

최대인원과 경품 회원우승 이기훈씨

제2회 실업인협회 친선골프대회는 지난 8월2일 오전9시부터 Richmond Hills Golf Club에서 170명의 골퍼들이 참석, 성황리에 열렸다.

궂은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전에 작성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 이날의 대회에는 회원 120명을 비롯, 25명의 외국상사 대표들이 참가, 열전을 벌인후 전원이 디너와 시상에 참석, 새벽 1시에 막을 내렸다.

땀을 쥔 SUDDEN DEATH

박영철, 이기훈, 브릭우승결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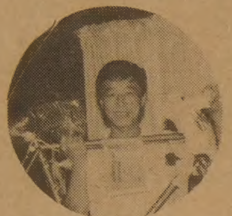
특히 이날의 경기에서 전참가자의 흥미를 집중시킨 것은 박영철 부총영사, 이기훈씨, 그리고 Toronto Sun의 매니저인 Bill Brick의 세분이 73 동점을 마크하여 실시된 Sudden Death Play off(연장전)이었다.

첫번홀인 10th 홀에서는 Bill Brick이 Short Putt을 놓침으로서 3선수가 모두 보기를 하여 11th 홀로 넘어갔다. 이 홀에서 Bill Brick과 이기훈씨만이 Par를 하여 다시 12th 홀로 넘어가 역시 함께 Par를 하여 4번째인 13th 홀에서 판결이 났다. Par 5인 이 홀에서 두 선수는 공히 3번에 green에 올려놓았으나 Bill Brick이 10 feet의 긴 putting을 집어넣으므로서 버디를 하여 영예의 그랜드 챔피온이 된 것이다.

시상에서 만면에 희색을 담은 Toronto Sun의 Bill Brick은 "참으로 인상깊은 Play off였다. 다른 두분은 우수한 golfer들이며, 나의 생애에서 잊지 못할 큰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화보

◆기쁨으로 가득찬 시상현장.


◆10 Speed 자전거를 번쩍 들은 김칠웅씨.

◆Longest Drive로 Florida 왕복비행기표를 받은 김현모씨와 기증자 최동주씨.

"친목과 단결의 기회가 되었으면…"

시상식의 인사말씀에서 차선경회장은 "120명이상의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모처럼 함께 모여 즐거운 하루를 가졌고, 대회의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와 같은 모임이 스코아나 골프의 규칙만을 따지는 단순한 골프시합에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서로 친교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협회원 상호간에 더욱 단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태진 이사장은 외국상사들을 위한 영어인사에서 "이와 같은 친선골프경기가 거래업체들과의 friendship과 나아가서는 business relationship의 발전에 기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Grand Champion Bill Brick에게 축하하는 김태진 이사장.

◆시상 수고하는 김풍수총무, 이학현이사, 이춘수이사.

$12,000상당의 상품 모든 회원들에게 골고루

각계 각처에서 들어온 $12,000 상당의 상품은 이춘수이사의 사회로 새벽 1시까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않은 가운데 거의 전원에게 골고루 상품이 배당되었는데,

10 Speed 일제자전거를 탄 김칠웅씨는 두손으로 자전거를 번쩍들어 박수를 받았고, 재봉틀을 탄 박광철씨는 차선경회장을 얼싸안고 포즈를 취하여 폭소를 터뜨리게 했다.

145를 쳐서 Most Honest상을 탄 Hostess의 Peter Duyn은 200여 파운드의 체격에 6인치의 소형트로피를 번쩍들고 자랑스러운 함성을 울리기도 하였다.

자정이 넘도록 전원 각자가 기대를 걸고 기다렸던 행운권 추첨 1등상인 Skyway Business Machine회사의 $1,200상당 Cash Register는 홍일점으로 홀 한구석에서 사무처리에 여념이 없던 협회 사무실의 경리담당 Mrs. 서선미씨에게로 돌아가서 하루종일 회비정리, 스코아계산에 수고한 피로를 완전히 잊게 해주었다.

토론토골프대회 사상 최대인원이 참가한 이 자리를 빌어서 토론토한인골프협회(회장 김현모)에서는 태극마크가 들은 golf ball을 판매함으로서 자금을 조달하였고, 8월14일의 체육행사를 앞두고 대한 체육회 캐나다지부(회장 이병권)에서는 찬조를호소하여 약 $2,000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협회에서는 많은 상품을 회사해줌으로서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하여준 여러기관, 제조회사 Supplier, 이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모든 회원들이 협회에서 계획한 순서대로 끝까지 협조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또한 협회에 대해서 회원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한 감사함과 아울러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였다.

입상자명단

〈회 원〉

챔피온 1982 이기훈 73

그로스 1등 김용기 76
2등 최상수 76
3등 박상남 78
4등 김현모 79
5등 김덕수 81
6등 이상봉 81

Gross (Net)

넷트A 1등 차선행 84 (71)
2등 조기연 89 (71)
3등 이계성 83 (72)
4등 유영갑(Y)84(72)
5등 김형도 85 (72)

넷트B 1등 문옥섭 90 (74)
2등 김칠웅 90 (74)
3등 김우영 90 (74)
4등 박경택 91 (74)
5등 유영갑(R)92(74)

넷트C 1등 이형재 100(76)
2등 이경선 100(76)
3등 고광헌 100(77)
4등 최무원 100(77)
5등 이영민 104(79)

〈비회원〉

그로스 1등 Bill Brick 73
2등 정길수 74
3등 Bob Heffer 75
4등 고광남 75
5등 John Hudson 76

넷트 1등 김홍량 80 (68)
2등 김성택 79 (69)
3등 김창갑 76 (70)
4등 박종선 77 (70)
5등 이영현 80 (70)

◉Nearest to Hole

윤장근…Florida 왕복항공표

함효상…Las Vegas 왕복항공표+3박4일

심태섭…New York 왕복항공표+3박4일

정 용…New York 왕복항공표

◉Longest Drive

김현모…Florida왕복항공표

Paul Carpe…Homma Driver

김형도…Powerbilt Driver

◉Most Honest

Peter Duyn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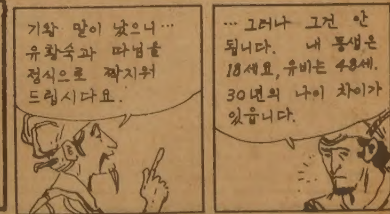
◉Best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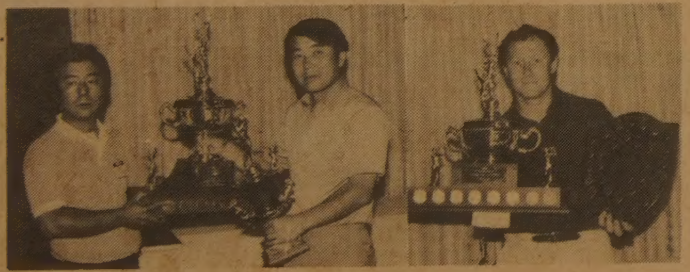
김성택 임중남 김홍량
윤장근 차영신 김태진
이상봉 김덕수 이계성
이형인 백운산 이계민
이호영 신용목 차선행
유영갑 백경락 (17명)

◆복권 1등상을 탄 서선미씨와 기증자 김인환씨.

◆Nearest로 Las Vegas 왕복비행기표를 타는 함효상씨와 기증자 Rosen Dairy의 Gordon McGrail.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감사 말씀

금번 실시된 제2회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친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골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많은 상품을 회사해 주신 각 기관, Supplier, 제조업자, 본협회 이사 여러분에게 우선 지상을 통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82년 8월 3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임직원 일동

제2회 한인실업인협회 친선골프대회

상품 기증해 주신 분들

〈외국계〉

Rosen Dairy	Las Vegas round trip air fare
Dempsters Bread	New York round trip air fare
York Ice Cream	New York round trip air fare
Humpty Dumpty	10 [illegible] Bicycle
Coca Cola	Portable Cooler etc.
Hustler	Polaroid Camera
Rothmans	12 cartons Cigarettes etc.
Panasonic	Automatic Telephone Answering System
Frito-Lay	2 Radios
Halton Caird Insurance	Smoke Alarm
Metro News	Portable Tape Recorder w/radio
Silverwood	Stereo Record Player
Hostess	Clock Radio etc.
U. B. A.	Radio
Penthouse	Digital Clock Radio
Sun Squeeze	15 c/s Juices
Canada Dry	Portable Cooler etc.
General Bakery	Golf Bag
Adult Cinema	2 Video Tapes
Oshawa Group	Home Workshop tools
Toronto Sun	2 Blue Jay Tickets etc.
7-Up	Beach Towels etc.
Neilson Ice Cream	12 Wonderland Tickets
Sealtest	Shirts etc.
Loeb	상품구입권 ($100)

〈한국계〉

Skyway 김인환	Cash Register ($1,200)
연합상사 김현모	Kal Kan Cat Food 100상자
신의상사 문인식	Florida 왕복항공표
서울여행사 최동주	Florida 왕복항공표
김태진 이사장	Bar Refigerator ($300)
외환은행 최승락	장미적금 첫불입금 ($250)
차선경 회장	재봉틀 2대($500)
신용조합 한상훈	신용적금 첫불입금 ($154.44)
강찬영 변호사	Wood 1, 3, 5 1set
조기연 부회장	Wood & Putter
체육회 이병권회장	Golf Bag
강춘남	도나쓰 300개
무나미 트로피	Homma Driver
다우스꽃집	Powerbilt Driver
한국일보	1년 구독권
민중신문	1년 구독권
코리언저널	1년 구독권
백경락부이사장	Golf Cart
이춘수 이사	Putter 3개
박경택 이사	Golf Bag
유영갑 이사(Y)	Golf Bag & Golf Cover
홍진표	Golf Shoes
서춘경 이사	Golf Bag
서동춘 이사	Golf Bag
이학현 이사	Golf 우산 5개
심태섭 부장	Putter 3개
이상철 이사	Golf Cover 5개
한천석 이사	Golf Bag
한덕상 이사	Golf Bag
Brandon Sports	Golf Towel 150매
장순채	Table Alarm Clock
한국비데오	Video Tape 10개 rent
김풍수 총무	Golf Ball
강경하 부장	Golf Ball
이홍규 부장	Golf Ball
유기훈	$100
이휘 이사	$50
칠성인쇄소 이인용	Golf Cart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日의 後續조치 注視

外務部당국자 "日側해명 是正의지로 評價"

양국의 政·學·言論界등 참여 常設 공동機構 설치 움직임

日本역사교과서의 歪曲敍述로 빚어진 韓·日양국간의 긴장사태는 『한국내의 비판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간관계자들과 함께 是正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일본의 통고를 한국측이 사실상 받아들임으로써 이문제는 일단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30일에 있은 일본外務省과 文部省의 통보를 歪曲에 대한 是正자세를 보인것으로 肯定的으로 평가함에 따라 앞으로 일본정부가 취할 後續조치를 注視하고 있다.

외무부의 고위당국자는 31일 『日本측의 해명은 是正의지를 보인 전진적인자세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日本의後續조치와 관련, 『日本정부가 민간레벨의 공동기구 설립을 암시한만큼 이에대한 실무협의제의가 있을것으로 안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정부가 일본통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것은 양국간의 진정한 우호를위해 大局的견지에서 판단한 것인만큼 이문제의 해결은 앞으로 일본이취할 後續조치에 是正을위한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는것으로 보여지고있다.

한외교소식통은 또『韓·日양국이 이번 교과서歪曲문제를 계기로 쌍방이 불필요한 오해의소지를 없애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차원의常設협의창구가 마련될것』이라고 예상하고 『협의의窓口는 예를들어『韓日공동연구위원회』나 또는 韓·日의원연맹등을 통한성격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

그런데 常設협의체가 구성될경우 양국의 政界·學界·言論界등이 참여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學界등 民間관계자들은『공동협의기구가 조속한 시일안에 歪曲부분을 시정하지 못하고 시간만을 끈다면 설립치않는것만 못한만큼 효과적인 운영과 신속한 결과를 나타낼수있도록 日本측의 성의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공동협의의기구가 日本의 다음檢定시기로 잡혀있는 3년후까지 구체적인 是正을 할수있도록 공동硏究 자문하는성격으로될날 가능성이크며 이렇게될경우 무의미한정력의 낭비가될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是正時限을 잡아놓고 활동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日本관계자는 日本교과서 歪曲문제와 관련해서 빚어진 日本閣僚의「妄言」에 대해서는 日本정부측에서 우리정부에 한번도 해명이없었음을 지적하고「妄言」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가 있은뒤 是正을 위한 공동노력이 있을수있지않겠나』고 말했다.

日교과서 是正 實務협의의 추진

日外務-文部省 빠르면 來週논의

【東京31日=宋孝彬특파원】일본외무성과문부성은 31일 교과서문제를둘러싸고 韓日우호관계에 금이 가지않도록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실천하기위한 민간교과서 실무협의체를구성할것을 검토하고있다.

믿을만한 소식통은 한일양국의 역사학자등으로 구성된 민간교과서실무협의체는 요즘 문제가되어있는 왜곡교과서의 문제점을축출, 협의·시정할것이며 빠르면내주중 한일양국이 이실무협의체의 발족문제를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년4월에 실시될 문제의 왜곡검정교과서는 이미 지난6월에 검정이 끝나 인쇄에 들어갔기때문에 그개정은 불가능하므로 이실무협의체가 발족된다하더라도 「3·1폭동」등 문제된 부분의 즉각적인 시정은 이루지기 어렵다.

따라서 한일양국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간교과서 실무협의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왜곡된 부분을 장기적인 협의를 통해 교과서편찬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민간단체들도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모임을갖고 성명을내는등 국내비판운동이 확대되고있다.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운동을 추진하고있는 이노우에(井上廈), 마쓰모토(松本淸張)등 일본의 대표적 문인, 학자 26명은 30일 교과서왜곡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는전의서를 스즈끼(鈴木善幸)수상에게 제출했으며 일본기독교3단체도 30일 일본이 국제여론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내용의공동성명을발표했다.

PLO 撤收 2·3週內에 하비브·살람合意

【베이루트30日외=합】필립·하비브 美중동특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간의 협상을 중계해온사에브·살람前 레바논수상은 PLO 게릴라들의 레바논 철수작업을 2~3週이내에 개시하기위한 원칙적합의가 이루어졌다고 30일 말했다.

살람前수상은 베이루트에서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과 만난후 그같이 밝히고 베이루트를 포위중인 이스라엘軍을 부분적으로 철수시킨후 그자리에 多國籍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문제를 비롯한 미결사항들은 1주일또는 10일이내에 타결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日·유럽지역등 歷史교과서 「한국歪曲」시정機構 두기로

文敎部

문교부는 31일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외국교과서의 한국문제에관한 왜곡표현을 가려내고 이를효과적으로 시정토록하기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것등을 골자로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의하면 ▲문교부안에 국제교과서 연구위원회를 두고 ▲산하기관인 교육개발원에 국제교과서 센터를 신설하며 ▲국사편찬위원회에 외국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사의 정당성여부를 검토할 학문적인 전담기구를 두도록 한다는것.

신설될 기구들은 상호긴밀한 연락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와 왜곡표현된 교과서내용의 수정을 추진하게된다.

한관계자에 의하면 교과서의 왜곡표현은 일본뿐만아니라 유럽, 중동등의 각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 역사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관해 잘못표현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대부분이 일본측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 유리하도록 왜곡표현되어있다는것.

교육개발원에 두게될 국제교과서센터는 각국에서 발간한 사회·역사에 관한 교과서등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들 자료를 학문적으로 정밀분석하게된다.

문교부는 이밖에도 외국교과서의 변천과정연구와 필요한 국가와의 관계학자교류등 적극추진키로하는한편 전담기구설치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확보를 위해 경제기획원등과 협의를 벌이고있다.

鳳凰大旗고교야구 플레이볼

오늘 서울運서 54팀參加 史上최대 잔치

한여름 白球의 대향연 鳳凰大旗쟁탈 제12회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오늘(1일) 상오10시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된다. 금년대회에는 在日同胞팀을 포함하여 전국54개팀이 참가, 국내야구사상 최대의 잔치를 펼친다.

영광의 草綠(우승), 朱紅(준우승), 紫朱(3위)鳳凰의 주인을 가리는 鳳凰大旗는 18일까지 18일동안 서울운동장 야구장서 총54게임을 펼치게 된다.

입장식은 1일상오10시 경찰악대의 주악속에서 54개팀 선수들의 입장으로시작, 林廷光대한야구협회장의 시구로 개막경기 光州眞興高-徽文高전이 플레이·볼된다.

개막을 하루앞둔 31일하오 54개팀 선수들은 서울운동장에서 입장식 예행연습을 가졌다.

오늘의 對陣

<1일> ◇1회전 <1루> <3루>

▲徽文高—眞興高 (1시)

▲信一高—北一高 (1시반)

▲培材高—浦鐵工 (4시)

내일의 對陣

<2일> ◇1회전 <1루> <3루>

▲德壽商—北坪高 (9시)

▲木浦商—大邱高 (11시반)

▲仁川高—馬山高 (2시)

▲大田高—京畿高 (4시반)

입장권 ▲특석=3천원 ▲일반=1천5백원 ▲학생=7백원

—협찬 한독양말—

日本 쪽이래야만되는가 <1>

序說

壬辰倭亂 직후엔 한국尊重 歷史歪曲 되려 日本의치욕

千寬宇 <史學者·한국일보 고문>

壬辰倭亂이 끝난 다음다음해부터 일본은 對馬島主를 중간에 넣어 여러번에 걸쳐서 和議를 청해왔다. 그쪽 사정도 알아볼 겸 四溟堂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포로 3천여명을되돌려받고 돌아온 것도 이무렵의 일이다. 『이젠 德川氏가 豊臣氏를 滅하여 새 국면이 되었으니 조선으로서도 원수를 갚은 셈이 아니냐』고 對馬島主가 좋은말로 권하고 해서 전쟁이 끝난지 11년만에 己酉約條란 것을 체결하여 戰後의 對日國交가 처음으로 回復되었다.

이때부터 조선은 일본德川幕府의 「將軍」이 새로 들어설때마다 경축의 뜻으로 「通信使」란는 使節을 江戶(동경)까지 보내기 전후 11차, 1764년까지 이것이 계속되었다.

이 「통신사」일행은 대개 4백여명이라는 대규모인데다가 威儀와 禮節이 대단했다. 使行이 지나가는 길목의 일본人士들이 저마다 글씨를 써주시오, 詩를 지어주시오해서 그 遺品들이 적지않게 일본에 남아있고, 江戶에서는 이들의 행렬을 보겠다고 시민들이 「개미떼처럼」모여들었다고 한다.

일본측은 우리 正使를 이른바 「御三家」와 동격으로 대접했고 또 실지로 이 「어삼가」가 우리 사행의 접대나 향응의 책임을 졌다. 「어삼가」란 「장군」의 近親인 최고급 領主로서 우리편에다가 굳이 비유한다면 3정승 (3의정)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었다.

교과서문제로 韓日간에 감정의 波高가 이만저만이 아닌 요즘에 하필이면 「통신사」이야기를 꺼내느냐고 할는지도 모르지만 한가지 말해두고 싶은것이 있어서이다.

선조때 제1차 통신사행의 正使였던 呂祐吉은 密陽府使로있다가 사신으로 갔다와서 忠淸監司가 되었다. 광해군때 제2차의 정사였던 吳允謙은 廣州牧使로 있다가 갔다온 뒤에 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인조 때 제3차의 정사였던 鄭岦은 都承旨로 있다가 갔다온 뒤에 工曹參判이되었다. 이하는 생략하지만아뭏든 우리편의 正使는 대개 3品정도. 이들이 일본에 가서 1品 3정승에 해당한는 고위층과 酬酌을 하면서 그야말로 「칙사대접」을 받은 것이다.

내가여기서 하고 싶은말은, 우리의 문화수준이 그만큼 높았다는 점보다도일본이 우리를 對하는 태도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정중하고 성의가 있었다는점에있다. 2백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이다.

일본측이 몰라서 우리를 대접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숙종때 新井白石이라는 저명한 학자 출신정치가가 조선사행 대접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서 제8차사행때 꼭한번 格下가 되어 옥신각신한 일이 있지만, 그 다음번부터는 前例대로 융숭한 原狀으로되돌아갔던 것을 보면, 역시 일본측은 우리와의 友好관계에성의가 있었던것이다.

19세기로 접어들어 서양艦船들이 일본에도 들이닥치면서,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는 서양 각국이「조선·지나」를 먹기전에 일본이 먹어야 한다는 주장들이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른바「幕末志士」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세계사앞에 개방된 것이 1854년 美·日간의 神奈川條約이고, 우리 역사에서 이와 맞먹는 것이 1876년 朝·日간의 江華島條約이다. 겨우 20여년 앞서 開港을 한 일본이 우리에게 같은수법으로 개항을 강요해 온것이다.

明治정부가 들어선 뒤로는「征韓論」이 나오고「脫亞論」이 나오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풍조가 더더구나 활개를치게 되었고 더구나 그것은 일본정부의政策論의 일부가되기도했다.

「征韓」이란 글자 그대로이지만, 「脫亞」란 무엇인가. 『우리일본의 국토는 아시아의 東邊에 있다하나 국민정신은 이미 아시아의固陋를 脫하여 서양문명으로 옮아왔다. 그런데 여기 불행한 近隣이 있으니 一은 支那요 一은 朝鮮이다. …惡友와 친하면 惡名을 면할수없은즉 우리는 진심으로 아시아東方의 惡友를 謝絶하는바이다』— 이것은 일본의「文明開化」에 큰몫을한 福澤諭吉의말이다. 그가 바로 甲申政變 전후에 우리開化派의 뒤를 밀어주던 인물인것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없다.

우리에 대한 일본인의優越感,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에 대한 蔑視가 된다. 그뿌리가 將近 2세기가 되려하는 것이다. 그멸시가 年輪을 쌓으면서 심지어 强占末期의 民族抹殺정책으로까지 치닫았었다.

이웃에사는 집이 서로反目을하면 저편더러 떨어져 있어달란든지 아니면 내편이 집꾸려 떠나가면 그만이겠지만, 나타난 것은 그렇지를 못해 궂으나좋으나 關係를맺고살지않을수가없다. 우리도이제는당당한獨立國家가 된지 30여년。그 옛날의 우월감이나 멸시가 먹혀들어가지 않게쯤은 되어있다. 그러기에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고 살아야 하고 버릴수 있을 것으로 期待도 해왔던 것이다. 그기대가 이번 교과서문제로 완전히 허물어지려하고있다.

우리는 일본인 가운데에도 그런 妄念을 꾸짖는 이들이 있는것을 안다. 이번만 해도 良識있는 學者들, 양식 있는 言論人들의 반응이 들려오고 있다.

옛날에도 그랬다. 「幕末志士」들이 서양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조선·지나」攻略을 주장하던 무렵, 幕府의 重臣으로서 국제정세에 밝았던 勝海舟같은 사람은 攻略 대신 「조선·지나」와의 聯合을 내세웠었다.

3·1운동 때도 柳宗悅과 같은 미술평론가는 우리편의 항일투쟁에 깊은 共鳴을 표시하면서『조선은 일본의노예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조선의 불명예라기보다 일본의 치욕이요 또 치욕』이라고갈파했다. 우리를 두둔해 준말이 고마운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의良識이라고 하고싶은것이다.

옛날 임진왜란이 끝난뒤에는 그처럼 상대를 尊重할줄 알던 일본이다. 이번일로 일본이 全아시아, 아니 全세계의 不信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良識있는 일본인들과 함께 나는 또한번 기대해보고자한다.

眞實이 아닌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더구나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기 위해 진실이 호려진다면 더욱 오래가지 않는다. 眞實을 되찾아야 하는 것은 지금 한국과 일본 양편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인 것이다.

◇필자의 主要論文과著書 論文=箕子攷·三韓攷·二·三部, 韓國史에서본 騎馬民族說, 灤河下流의朝鮮, 復元加耶史, 目支國考, 廣開土王陵碑文再論등 著書=韓國史의再發見, 韓國上古史의爭點(編) 近世朝鮮史硏究

金正日 毒殺미수 계모 金聖愛일파 統一日報보도

【東京31日=합】지난6월말 북한에서는 金日成의후처 金聖愛일파에 의한 金正日독살미수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때문에 金正日과 金聖愛파간의 암투가 격화되고 있다고 東京에서 발간되는 統一日報가 31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북한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지난6월말에는 黨과 軍간부 子弟수십명이 金正日제거를 모의한 이른바『玉流館사건』도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독살미수사건이 金正日의 지방출장때 발생했으나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으며 격노한 金正日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계모인 金聖愛일파의 음모를 밝혀내 숙청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또 이른바 「玉流館사건」에는 朝總聯의장 韓德銖의 아들도 관련돼있어 조총련내에서도 연루자 색출작업이 벌어지고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533·2361

地平線

짧은 늦장마 였지만 오랜 가뭄을 시원스럽게 거둬 갔다. 한여름의 거리가 한결 싱싱하다. 어디선가 그날의 독립만세 소리가 금방 들릴것만 같다. 광복과 독립의 달, 8월이다. 달력을 한장 다시 넘겨본다. 계절이 엇갈린다. 광복절인 15일은 일요일이자 말복이들었다. 올해 越伏을 한셈인데 그 1주일 앞서 입추가 불쑥 다가 선다. 伏中에 가을소식이라니 섭섭하기도 하다. 처서도 23일이니 여름과 가을이 이 8월에 「공존」한다.

▼바캉스철이 절정을 이룬다. 바다와 산이 인파로 메워질듯 하다. 「여름 살은 풋살」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마구 살갗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 해방감이 해이감으로 번질까 두렵다. 해방은 「자주」의 구심력이 작동. 하나 해이는 「방종」의 원심력에 말려들기 쉽다. 집단의 대이동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태양과 바다의유혹은 안전사고의 불안이 따른다. 輪禍와 溺死, 전염병의 함정에 빠져선 안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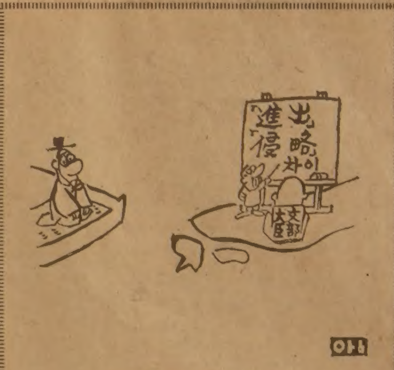
▼녹음이 짙은 여름은 슬기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더위에 괴로와 하는데 나는 여름해가 긴것을 좋아한다」고 蘇東坡는 노래했다. 여름의 「長日」을 어떻게 유용하게 보낼것인가…. 학생들의 여름방학도 지금 한창 즐거울때다. 그러나 쾌락이 탈선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무서운 결과를 부른다. 꿈많고 건전하게 보낸 방학은 개학과함께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것이다.

▼오늘부터 서울운동장엔 「鳳凰의 꿈」이 난다. 봉황의 雄飛는 해마다 새롭다. 12회째맞는 이번 고등학교 야구대회는 전국에서 54개팀의「야망」이 참가한다. 해마다 여름방학에 폭발하는 하이틴의 힘이 올해 최대규모로 모아졌다. 봉황의 구장은 언제나 뜨겁다. 지난해에도 50만의 인파가 함성을 울렸다. 단일 경기론 최고의 관객동원 기록이다. 전국 54개팀의 열전이 벌어질 올해 경기도 이 기록을 다시 무너뜨릴것으로 예상된다.

▼봉황대기 고교야구의 요람은 재일동포 모국방문 학생야구대회였다. 이대회를통해 재일동포에게 모국애가 심어졌고 혈육의 정이 짜릿하게 전해졌다. 국내 고교야구엔 큰 자극을 주었다. 이 밑거름이 우리 프로야구 탄생에 한몫을 했다고 믿는다. 지금 한일간의 격랑은 사뭇 거세다. 봉황의 雄飛엔 이 격랑을 이겨나갈 우리의 의지가 담겼다. 광복의 달에 봉황의 打球는 거침것 없는 하늘을 날것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다시 배우기로…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한국관

❀ 각종 중국요리는: 진따이 (중국인 일류 쿡)
❀ 짬뽕, 짜장면은: 정인기 (중식전문 요리사)
❀ 해장국, 곰탕은: 김옥수 (한식전문 요리사)

회의실 완비

자신을 갖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기계로 뽑는 진짜 냉면은 역시 한국관!!

628 BLOOR ST. W. ☎ 536-0290

대표 나 옥 녀

아침에

목청만 높이기 전에…

그들에게 깔보이는 까닭부터 살펴야

申庚林 〈詩人〉

83학년도부터 쓰일 일본의 고교용 새사회과 교과서가 일본帝國主義의 한국침략을 오히려 美化하고 合理化하는 쪽으로 고쳐져 있다니, 아무래도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선생들에게 억지로 이끌려 뙤약볕 아래 산비탈길을 올라가 그 싫은 신사참배를 하던 일,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우리말을 썼다 해서 교무실로 잡혀가 온종일 꿇어 앉았던 일 등이 바로 어제 일같이 기억에 생생한데, 신사참배는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장려했고, 우리말은 못쓰게 한 것이 아니요 日語와 倂用하게 했다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도 아주 한참 없다는 생각이다. 역시 섬나라 백성은 어쩔 수 없어 하고 치워버리면 그만이겠지만, 36년간이나 말로 이루 다할 수 없이 당한 우리이고 보니 그렇게 너그럽게 넘기기에는 너무도 분한 마음이 앞선다.

따지고보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歪曲은 일본국민들을위해 더욱 불행한일이다. 결국 이러한 歪曲은 과거의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식민주의를 기리는데서 오는것이겠는데, 그렇다면 자라나는 세대를 제국주의자, 식민주의자를 만들자는것이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國力은 제2차대전 직전 세계적인 수준의 것이었다. 이 일본을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만든것은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않은것은 아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제국주의자요 군국주의자요 식민주의자였다. 일본은 또한번 이러한 패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려는것인가.

또 듣자니, 이 역사적 사실의 왜곡에대해서 저들 일본정부는 中共에게는 정중히 사과를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한국측의 비판과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생각」운운한는 아리송한 말로 우물우물 넘어가려하고 있는것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저들이 우리를 깔보는데서 나온 행태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한국쪽이야 어떻게 다루든 무슨상관이랴」라는 생각이 저들마음속 깊은곳에 깔려있는것이 아닐까.

사실 저들에게 깔보일 이유는 얼핏 생각해도 적지는않다. 저들에게 돈을 꾸어다 써야하는 우리네 오늘의 형편이 그러하고, 36년간이나 우리를 짓밟고 멋대로 다스렸으니 우리앞에서 우쭐할만도 하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데만 원인이 있는것같지는 않다. 돈꾸어다 쓰면서도 큰소리치고, 당했단는 것때문에 더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예를 국제사회에서 얼마든지 볼수있는 까닭이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우리를 깔보는 가장 큰 까닭이 우리가 너무 저들에게 닮아있기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만만히 보고 가장 경멸하고, 그래서 가장 손쉬운 상대로 여기는것은 에피고넨, 이른바 亞流이다. 자기하고 생각하는것, 말투, 행동거지가 비슷하면서도 자기만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흉내내려고 애쓰는 상대처럼 손쉬운 상대는 없다. 또 이러한 상대처럼 밉고 싫은 상대도 없다.

과연 오늘의 우리를 일본의 亞流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흉내를 내고있다고 표현하는 편이 옳을는지도 모른다. 아파트가 늘어나는 일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일본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택의 아파트化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로 입을 막아버리며, 公害문제가 나오면 이미 여러해 전에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인만큼 어차피 우리도 한번겪지 않으면 안된다는 不可避論이 解答으로 제시되고, 영화의 지나친 에로티시즘이 논란의 대상이 될라치면 일본서는 거의 모든 영화가 포르노化돼 있다면서 더말을 못하게 한다. 책광고를 하는데도 「일본에서 몇백만부 돌파」가 으레 들어가야 하고, 청량음료 하나도 일본에서 히트하지 않은것이면 이고장에서는 먹혀들어가지않는다는 식이다. 마치 누가 먼저 일본것을 흉내내오는가에 이고장에서의 성공여부가 달린것이 아닌가하는 느낌마저 갖게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생활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신문이나 방송도 틀에 있어서 어쩌면 일본을 그렇게도 닮았느냐 하는 것이다. 몇해 전 부산에 갔다가 우연히 일본 텔레비젼의 한 프로를 보았는데, 6개월쯤 뒤에 보니 그 프로가 조금도 變型되지 않은 채 우리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놀란 일이 있다. 사회자가 가수인 것도 같고, 표정이나 손짓도 너무나 비슷했다. 어떤 술자리에서 텔리비전 관계자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와 일본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웃어 넘겼다.

우리의 생각, 삶의 방식이 일본을 닮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제 와서 나무랄수 있겠느냐고 탓한다면 할말이 없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근대화 자체가 일본을 모델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큰 테두리에서는 일본을 뒤좇아가면서 작은 테두리에서만은 일본 흉내를 내지 말란다는 것은 말이 어긋나도 여간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되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이 꼭 일본을 맹목적으로 뒤좇는 길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의 근대화가 반드시 일본의 근대화 그 전부를 모델로 할때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일본이 우리보다 일찍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생활을 과학화하고 합리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른바 근대화과정에서 저들은 잘못도 많이 저질렀고 試行錯誤도 많이 했다. 오늘 우리는 그것까지도 근대화과정에서 어쩔수없이 거치는 것으로 알고 맹목적으로 뒤좇고 있는것은 아닐까?

옛날에 우리가 살아온 길은 일본과는 같지 않았다. 생각하는것도 저들과는 같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외국의 힘으로, 다음에는 우리 힘으로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생각하는 것이 점점 일본을 닮아가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길에 바탕한 우리의 근대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일본의 근대화의 길을 비판없이 그대로 교과서로 쓰는 손쉬운 방법을 택함으로써, 저들의 입장에서 볼때 亞流라는 비웃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경멸과 조롱의 만만한 상대가 된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는다반일주의자다. 입만 벌리면 으레 쪽바리요 왜놈이요, 이러고 보니 우리 국민사이에는 반일감정이 깊이깔려 있다는 말도 나올만하다. 그러나 저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생각이며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름의 생각, 생활방식을 가지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한 이러한 반일은 문자 그대로 감정적인 반일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자존심을 가지고 저들을 대할수 있는 길로부터는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은 말할것도 없다. 한데 최근의 교과서를 둘러싼 문제를 놓고는 우리가 저들에게 괄시받지않고 마주대할 길은 찾을 생각을 않고 너무 목청만 높이는것같다.

일본 교과서에 잘못 기술된 역사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것도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권리요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것은 저들에게서 괄시받지 않고사는 일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을 흉내내는, 저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삶의 길이 아닌, 우리의 참 사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는 일이다.

메아리

弄語

H라는 젊은이를 뉴욕에서 만났다. 平和奉仕團의 한사람으로 한국에 왔다가 귀국해서는, 우리나라 재벌회사의 미국지사에 근무한다. 잠시 일본系회사에서도 일해본 사람이다.

그가 일본사람은 좀 이상하다고한다. 뭔가를 기안해 올리면 일본인상사는 웃는 낯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번번이 그것은「검토」아닌「No」더란 얘기다.

비슷한 얘기를 워싱턴에서도 들었다. 일본정부 당국자와 접촉해본 미국정부고관들 사이에는, 일본사람들이 연발하는「언더스탠드」(理解하다, 알아듣는다)란 말에대해 불평이 많다는 가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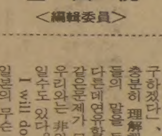
그말을 듣고 미국사람은 긍정적인 회답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일본사람은 남의 말을 알아들었거나 상대방의 처지를 理解한 것이 아니라, 그냥「들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결과를 빚는다. 당연히 배신감이 따른다.

69년 11월 일본의 사또(佐藤榮作)총리는 워싱턴을 찾아, 닉슨 대통령과 오끼나와섬의 반환문제를 협상했다. 그결과로 오끼나와는 일본으로 환원이 됐고 그 공로로 사또는 노벨平和賞을받았다.

그때 닉슨은 오끼나와 반환의 선물이 있는터라, 美·日무역의 역조,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섬유수출문제의 선처를 요망했다. 그에 대한 사또의 대답이 "I will do my utmost"(最善을 다하겠다) 였다. 이말을 듣고 닉슨은 만족했을 테지만 그뒤 美·日섬유전쟁이 더욱 가열됐음은 모두가 아는대로다. 미국측은 한나라의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들고나와 큰 말썽이났다. 그에대한 일본측의 해명은 통역의 잘못으로 사또의 말뜻이 잘못전달됐다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그저 영어가 까다롭다든가, 외국어만을 써서 외국인과 의사소통하기가 어렵다는 예증이라면, 웃어넘기면 그만이다. 그것은 일본과 언어의구조나 언어감각이 비슷한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敎訓的인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런 일본식 語法이 일본사람의 屬性과 관계된다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일본말을 알아듣는다. 영어를 매개로 하지않는 우리나라사람도, 닉슨이 당했던 면구스러움을 번번이 당해야 한다는데, 문제는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사람들의 그 語法은, 영어의 문제가 아닌 屬性의 문제라는 증거다.



金昌悅 〈編輯委員〉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일본정부는 30일 「한국 국민의 감정을 理解한다」「是正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전했다. 바로 「언더스탠드」요, "I will do my utmost"다. 통역없이 한이말의 眞意를 우리는 「理解」하고남는다.

일본정부는 하루전 꼭 같은 말을 中共에게도했다. 그러나 말을 하고 돌아서서 한 저들의 코멘트는 다르다. 中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성의껏 理解를 구하겠다」, 우리에 대해서는 「한국은 충분히 理解했다」였다. 이 차이는 저들의 말을 들은 中共과 우리의 반응이 다른데연유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같은문제가 日·中共간에는 외교문제요, 우리와는 非외교문제라는 사실의 반영일수도 있다.

"I will do my utmost"를 되뇌면서, 일본의 무슨 局長은 「한국정부의 신중한 조치에 대해 재삼 고맙게생각한다」고 서두를놓았다고 한다. 일본사람답게 상냥하다 싶기는 하지만, 호들갑 스럽게 희한한 말이다. 그「고맙다」는 말은 일본류의 인사일까, 眞談일까. 그것이 眞談이라면 「신중한 조치」란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것같다.

"學者로서 罪責感느낀다"

日執筆者들 "文部省서 수정強要"

朝日新聞 證言인용 보도

【東京31日=聯】일본文部省은 내년도 日本史및 세계사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3·1독립운동과 강제연행부분에 대해 반드시 수정하라는 이른바 수정의견을 강요했으며 집필자들은 결국 도리없이 지시에 따른것으로 밝혀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31일 교과서집필자와 출판사측의 증언을인용, 검정관이 한국에 관한 엄연한 역사적定說도 수정할것을 강요했다고 밝히고 文部省방침에따라 記述을바꾼 집필자들이 최근의 자책감을 느끼고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아사히는 집필자들이 검정의 강제성을 부인하는일본문부성의 일관된 입장에대해『거짓말을 늘어놓고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日文部省은 30일 李相振駐日公使에게 검정제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①검정에서의국가의 관여는 의견제시에 그치며 記述의 최종판단은 어디까지나 民間 著作者에게맡겨져 있으며 ②검정에 임할 때는 과거 韓日관계에 대한 반성과 韓日우호정신에 입각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이것도 집필자들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한국정부를 기만한 꼴이 되는 셈이며 중대한 외교문제가 아닐수 없다. 아사히가 집필자증언을 통해 밝힌 한국부분의 검정당시 검정관과 집필자간의 문답내용은 다음과같다.

"抗辯해도 方針변경여지 안보여"

3·1獨立運動

◀어느 대학교수는 작년10월말 문부성에서 자신이집필한 고교일본사에 관해 이틀간 총15시간에 걸쳐 수정지시를 받았다.

◀검정전원고『3·1독립운동당시 일본의 군대와 경찰의 탄압으로 조선인7천명이상이 살해됐으며 다수의교회가 불탔다』가 검정후 수정지시에따라 『군대·경찰에 의해 폭동은 엄하게 탄압됐다』로 변경.

◀문답내용:검정관=탄압이라는 표현이 문제이나 폭동으로 발전했으니까 탄압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곤란하다. 특히 7천명이상이란것은 근거가 없다.

교수=조선近代史 연구에서는 7천명이 정설이며 어느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검정관=7천명의 기본이된 숫자자체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교수의 얘기=아무리 항변하고 논쟁해도 소용없어 방침변경의 여지가 없다고느껴 별수없이 지시에 따랐다.

이것이 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자책으로 가득차있다.

"자유롭게 製作" 云云은 거짓말

강제연행

◀검정전원고『조선인·중국인을 일본본토에 강제적으로 연행, 광산등에서 혹사했다』가 수정지시에따라 『국민징용령에의해 다수의 조선인이 內地로 연행돼광산등지에서사역했다』로바뀌어졌다.

◀문답내용:검정관=조선인에 관해서는 강제라는 표현이 부적당하다.

교수=수정의견인가 아니면 개선의견인가.

검정관=수정의견이다. 조선인의 경우는 국민징용령으로 한것이다. 官의 알선으로 국민을 뽑았다. 조선인과 중국인을 竝記해도 사정이 틀린다. 조선인과 중국인을 구별해야한다. 조선인이 중국인보다 많았다.

◀교수의 말=최종적으로 타협하여 합의해 주었으므로 지금와서 잘했다고 큰소리칠것은 하나도없다. 그러나 교과서가 꽤자유스럽게 만들어지고있다는 문부성 담당국장의 발언을 신문에서 읽고 아연실색했다. 이런 거짓말은 세상에 또 없다.

이교수는 중국침략과 남경대학살부분에 관해서도 검정관과의 문답내용을 밝히면서 수정을 강요당했다고말했다.

對蘇 穀物판매협정 1년延長

레이건 새協定은 거부, 西歐반발 예상

【워싱턴30日AP=聯】레이건 美 대통령은 오는9월30일 만료되는 현행 對蘇곡물판매협정의 1년연장과 수출물량의 증량을 추진할것이나 새로운 장기곡물판매협상은 계속 거부할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白堊館에 의해 발표된성명을통해『각의와의 협의를거쳐 관계관들에게 현행 對蘇곡물판매협정의 1년연장가능성과 현행협정하에서의 수출물량 증량가능성을 소련측과 협의하도록 재가했다』고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러나 폴란드계엄통치에 대한 소련의 역할과 관련,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소련과의 어떠한 장기곡물협정체결논의도 거부할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베리아와 西유럽을 잇는 천연가스관건설에 대한 美製 장비금수조치에 불만을 품고 있는 유럽동맹국들은 이같은 미국의 對蘇곡물수출협상에 크게 반발할것이 확실하다.

현행협정에 따라 蘇聯은 연간6백만톤의 곡물을, 그리고 美행정부의 특별승인없이도 2백만톤을 추가구매할수 있는데 당초 77~81년까지의 5개년기한이었던 이협정은 미 작년에1년연장된바있다.

그동안 농업지역의 共和黨출신의원들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현행 곡물협정을 최소한 1년이상 연장하지않을경우 이번 가을의 선거에서 共和黨이 큰 타격을 입을것이라고 경고해왔다.

美制裁대응안 討議 코메콘 頂上會談서

【모스크바30日UPI·聯=聯】東歐경제상호원조회의(코메콘) 회원국들은 차기 코메콘정상회담에서 미국의 對東구권경제제재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토의할 것이라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가 이날 蘇연방공화국들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휴양도시 크리미아에서 구스타프·후사크 체코지도자와 회담을갖고 대서방경제협력및 유대관계에 관해 토의했다고 밝히면서 그같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소련·체코양국이 이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세계의 테두리에서 상호경제관계를 보다 돈독히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며 차기코메콘정상회담에서 이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것이라고 전했다.

◇레이건과 埃外相 레이건 대통령(카메라를등진사람)이 30일 백악관에서 카말·하산알리 이집트外相(左)및 아스라프·고르발駐美 이집트대사등과 회담을 갖고있다. 【워싱턴30일AP電送=聯】

하비브와의 協商中斷

레바논 와잔首相 이強硬策계속때

【베이루트30日AP=聯】사피크·와잔 레바논수상은 30일 팔레스타인 게릴라의 아랍4국분산疏開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토의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西베이루트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경봉쇄정책을 계속할 경우 필립·하비브美중동특사와 벌이고 있는 평화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파나마 親衛쿠데타

파레데스將軍 內閣총사퇴 요구

【파나마시티(파나마)30日AP=聯】아리스테데스·로요 파나마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돌연 사임한데이어 파나마軍사령관 루벤·다리오·파레데스장군은 30일 내각총사퇴를 요구함으로써 파나마에 친위쿠데타가 발생한것으로 보인다.

파레데스장군은 로요대통령의 사임발표가 나온후 기자회견을 갖고 州知事·시장및 공공유용협의를 받고있는 사회안전기금책임자들을 포함한 모든 고위관리들이 즉각 사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로요 대통령을 승계한 리카르도·데·라·에스프리엘라 신임 대통령이 파레데스장군의 권고를 받아들이게될 것이라고말했다.

◇아파치族 청년·황소의 레슬링 아파치족출신의 그레그·빌더먼이라는 기수가 29일 샤이엔에서 열린 황소레슬링대회에서 진흙탕위를 뒹굴며 황소와 격투를 벌이고있다. 【샤이엔(美와이오밍州) AP電送=聯】

海外토픽

敎皇초상새긴 鑄貨

★波, 올가을 5종류 流通

폴란드정부는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초상을새긴 3종류의 금화와 2종류의은화를 주조, 오는 가을부터 유통시킬 예정이라고.

폴란드역사상 살아있는 실제인물의 초상을 유통화폐에 새겨넣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것.

이화폐들의 다른면에는 폴란드의 상징인 독수리와 화폐의 명목가치가새겨져있다. 【바르샤바=AP】

西獨 裸體활보증가

★놀라거나 團束호소 줄어

보수적인 서독인들 사이에도 요즘 여름철을 맞아 옷을 벗고 거리나 해변가를 거니는 나체주의자들의 수가 늘어나고있으며 시민들도 예전과 달리 이에 놀라거나 단속을 호소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서독 DPA통신이 최근실시한 여론조사에따르면 서독주민들은 그들의 이웃이 가슴을 드러내놓거나 나체가되어있는 것에 익숙해져가고있는데 오늘날 서독의 대부분도시에서는 나체일광욕을 즐기는사람들을 흔히 볼수있지만 그래도 보수성향이 강한 일부지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함부르크(서독)=UPI】

女性할례후 숨져

★케냐, 施術士에 징역형

임신6개월의 국민학교 여학생에게 「여성할례」시술을 했다가 이소녀를 죽게한 케냐 서포코트지방의「여성할례시술사」가 최근 법원에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케냐통신이 보도. 【나이로비=AP】

아랍新聞들도 크게報道

日 왜곡교과서 波紋

【마나마(바레인)30日=聯】페르시아灣의 아랍국 신문들은 29일과 30일 日本文部省이 역사교과서검정에서 한국과 중국에 관한 史實을 왜곡한 교과서파동을 크게 보도함으로써깊은관심을보였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英字紙 할리즈·타임즈는 30일 주요통신보도를 인용, 일본이 역사교과서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의 사실을 왜곡기술함으로써 한국민과 중국민들의 격분을 샀다고 보도했다.

두바이에서 발행되는 이신문은 또 駐韓일본대사관의경비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英字紙 아랍·뉴스는 29일 한국과 중공이 왜곡된 일본교과서 내용에 항의,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日蠻行 생생히記憶 臺灣교육부부장

【臺北31日CNA=聯】리·모自由中國교육부부장(차관)은 30일 역사적 사실이 교과서를 고친다고해서 지워질수는없다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조처를 비난했다.

그는 일본이 교과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2차대전 이나 대전중에 日本軍이 중국인에 저지른만행과 잔학행위를 감추려고 하고있다고지적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과 비인도적만행은 일본침략군의 총검으로부터 살아남은 목격자들에게는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있다고 덧붙였다.

日文部省 회피급급 新華社통신 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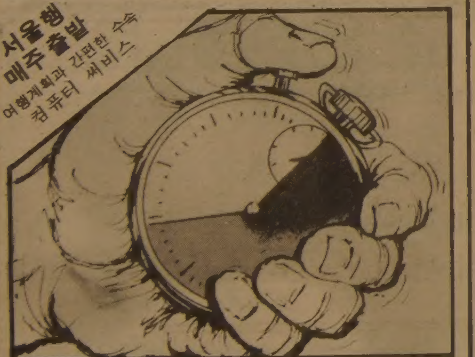
【北京30日P聯=聯】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은 30일 日本文部省이 日·中共양국간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일본의 교과검정문제와 관련하여『책임을 회피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이 통신은 이날 논평기사에서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편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는 보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표명하면서 일본 문부성의 이같은 해명은 아마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日전쟁태도에 變化 美저널紙

【뉴욕30日=聯】최근 새로쓰여진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2차세계대전前의 일본의 아시아대륙침략사실을 歪曲되게 기술하여 세찬 비난이 일고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쟁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중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紙가 30일 보도했다.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출발에서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여행계획과 간편한 수속,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겠읍니다.

535-6004 535-8801

SEOUL TRAVEL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최 동 주
IATA
(R)293-9970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락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외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욱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한국일보 특집판

건강情報 肝炎과 백신의 모든것

肝炎

너도나도 백신맞자, 병원마다 「恐怖隊列」

간염쇼크가 대단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민의 6·14%가 B형간염 바이러스를보균하고있다는 사실이 서울醫大金丁龍교수팀과 赤十字병원검사과팀 공동조사)이 알려지자 간염공포를 호소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의료계에서는 서둘러 예방책을 강구하기에 골몰하고있으며 약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백신을 수입, 일부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서는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정계에서는 "일단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다는 고질병이 이토록 만연되도록 방치할수 없다"고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대한의학협회등 관계단체에서는 「간염0%운동」을 전개하기위한 중지를 모으고있다.

재벌기업인 S물산과 K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가 중역진등간부들에게 간염백신을 맞도록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의약계에서 처음으로 B형간염백신을 수입한 것은 지난 7월9일. 대한중외제약이 美MSD社에서 새로개발한 HB박스(HBVOX) 1만병(3천명분)을 긴급 수입했다.

이 약이 수입되자 가톨릭의대부속 聖母병원, 梨大부속병원, 高麗병원등 일부종합병원에서 채택돼 일반희망자들에게 접종해주고 있으며, 延大부속병원등 일부병원에서는 약사위원회결정이 끝나 제품공급을 기다리고 있고, 서울大부속병원등에서는 약사위에 상정돼 결정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이다.

가톨릭醫大부속 聖母병원은 우선 50병을 들여와 2주일전부터 희망자들에게 이백신을 접종해주고 있는데 희망자가 너무 많아 약이 달린다는 것이다. 鄭燦國교수(내과)에 의하면 접종을 위한 사전검사를 받아놓고 접종을 기다리고있는 사람만도 수십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梨大부속병원에서도 지난 20일부터 이백신을 구입, 우선 간염위험도가 높은 의사·간호원등 일선의료진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접종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정밀한 검사를 통해 접종해주고있다. 동병원 내과 尹晧一교수에 의하면 내과의료진및 마취과 관계자들이 가장 간염이환위험도가 높아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 백신은 美MSD社가새로 개발, 작년 11월16일 FDA(美식품의약국)의 공인을 받은것으로, 건강한 사람이 일정한간격으로 3회 접종을 받으면 96% 정도는 5년간 항체가 형성된다고.

이와함께 佛巴제약은 프랑스 파스퇴르(Pasteur) 연구소가 개발한「헤박B(H-evac B)」파스퇴르」란 백신 수입을 서두르고 있다. 동회사에 의하면 오는 8월초 우선 1만도스(1만회분)가 입하되는대로 각병원에보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백신도 지난해부터 프랑스에서 시판되기 시작한 신개발약으로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物量모자라 緊急 수입하기도 某財閥, 중역진에 "모두맞으라"

제약회사측에 의하면 이들 백신은 개발과정에서 칩팬지를 이용한 임상실험을 통해 96~98%의 항체형성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돼있다는 것이나, 일부 의사들은 아직 국내에서 투약해본 일이 없으므로 신중히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약도 다른 약들처럼 체질에 따라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종자의 간염바이러스보균여부, 항체보유여부등 5개항에 대한 체크를 해야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되는것은 약값이 너무 비싸 일반에 널리 보급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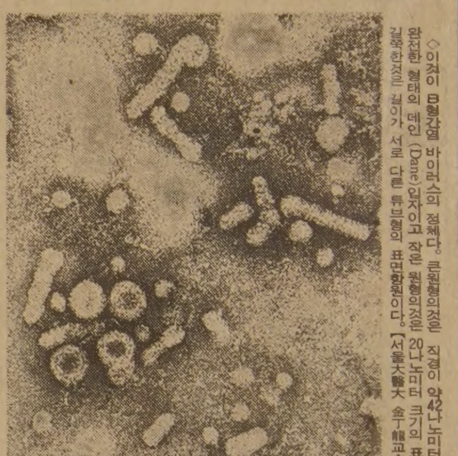
수입원측은 이 백신을 생산하는데 65주라는 오랜기일이 소요되는데다 원료가 혈액이어서 제조단가가 비싸고, 개발과정에서 나날이 멸종돼가는 희귀동물 챔팬지를 임상실험으로 이용했기때문에 개발비용이 비싸게 먹혀 시가가 비싸다는것이다.

대한의학협회 공보이사 朴奭喆씨도 "이들 수입백신의 효과는 좋은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접종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화되기에는 어려울것"이라며 "하루속히 국내개발백신이 나와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대한 의학협회는 지난해 관계연구팀을로부터 간염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간염대책위원회를구성, 예방및 퇴치사업을 벌이고있다. 동협회는 서울醫大 金丁龍교수등 학계권위자들에게 지원금을 주어 예방및 치료책에 관한 연구를 시키는 한편 대국민계몽책을 세우고있다.

동협회는 1차적으로 정부에 대해 B형간염을 2종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줄것을 건의했으며 금년안으로 ▲반상회를 통해 계몽전단을 살포하고 의사들을 참석시켜 몽케 하며 ▲각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들을 접촉할 때마다 간염의 위험성등에 대해 계몽할것등 적극적인 홍보책을 강구하고있다.

【文昌宰기자】



◇이것이 B형간염 바이러스의 정체다。큰원형의것은 직경이 약42나노미터 크기의 완전한 형태의 데인(Dane)입자이고 작은 원형의것은 20나노미터 크기의 표면항원, 길쭉한것은 길이가 서로 다른 튜브형의 표면항원이다。【서울大醫大 金丁龍교수 촬영】

백신의 效果는

B型 예방 90%線까지 기대

최근 바이러스성B형간염예방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시판을 개시, 이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바이러스성B형간염 예방백신의 정체와 효과는 과연 어떤 것일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두말할 필요없이 병을 치료하기보다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데 있다. 백신이란 바로 이에 착안된것, 바이러스성B형간염 백신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몸은 본시 어떤 병원체와 만나도 그 병원체와 대항해서 싸우는 힘(免疫力)을 갖고있다. 사람이 각종병원체가 우글거리는 환경 속에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 탈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있는 이유는 여기에있다.

인체가 이같은 면역력을갖는데는 두가지 길이있다. 하나는 병원체가 몸안에 들어와 이에 대항해서 싸울 경찰(抗體)을 양성하는 것(自家免疫)이고 다른하나는 경찰을 양성하도록 외부에서 자극(백신등)을 주는것(人工免疫)이다.

인공면역에는 이미 형성된 항체가 담겨있는 혈청이나감마·글로불린을주는 수동면역과 백신을주는 능동면역방법이있다. 따라서 바이러스성B형간염 백신은 능동면역에 속한다. 백신이라고 하면 보통 생백신, 사백신, 미생물이 만들어낸 독소를 약화시킨 톡소이드(toxoid)등 3가지를 꼽는다. 생백신은살아있는 병원체를 약화시킨것으로 백신의 효시가된 천연두를비롯해서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탄저, 황열(黃熱), BCG등. 사백신이 이에 속한다. 사백신은 병원체를 석탄산이나 포르말린, 아세톤같은 화학물질이나 열또는 자외선등으로 죽인것인데 장티푸스, 뇌염, 백일해, 콜레라, 페스트, 리케차아, 광견병등 백신이 이에속한다. 독소를약화시킨 톡소이드론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신이있다.

그러나 바이러스성B형간염 백신은 이를 보통백신과는 다르다. 이백신은 B형간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중 겉질(殼)부에 해당하는 표면항원(H Bs Ag)만을 정제해서 만들고 있다.

백신은 아무리 잘만들어도 자연면역때와 같은 생체 반응을 몸속에서 일으킬수는 없다. 따라서 백신을 이용해서 1백%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하는것은 기대할수없다.

백신가운데 예방효과가 그래도 좋은것은 생백신. 대체로 90%이상에서 예방효과를 얻을수 있다. 사백신과 톡소이드는 이보다 떨어져 70~80%정도에 머문다.

예를들어 장티푸스의 경우 아세톤으로 살균한 백신은 2~3년간 79~94%의 방어력을 갖게되고 석탄산으로 살균한것은 51~73%선에 머문다. 콜레라의경우는 이보다 떨어져 가장좋다고 하는것이 6개월간 75%, 18개월까지는 60%정도의 예방효과를가지며 대개는 3개월이넘으면 30~40%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B형간염백신은 대한중외제약이 미국 MS&D회사제품을 수입, HB박스란 이름으로 시판하고 있고, 동아제약이 곧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로부터 들여와 헤박B파스퇴르란 이름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HB박스는 정제된 B형간염표면항원 20마이크로그램씩을3회, 헤박B파스퇴르는 5마이크로그램씩을 4회에 걸쳐 맞도록 되어 있다. 접종방법은 HB박스가 첫접종 1개월후 2회접종을하고 6개월후 추가접종을, 헤박B파스퇴르는 첫접종 1개월과 2개월에 2회와 3회접종을하고 14개월후 추가접종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몸안에 항체를 만들어 주는 효과는 모두 95%이상.

그러나 실제적인 B형간염 예방효과는 90%정도선이 될것이란 국내임상계의견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가격. HB박스의 경우 1회 접종비용이 10세미만(10마이크로그램) 3만원, 11세이상(20〃) 5만5천원에 이른다. 이는 B형간염백선을 만드는 원료가 B형간염 바이러스를 갖고있는 보균자의혈액이어야만 하는데다 이로부터 순수간염 B표면항원을뽑아내는 과정이 까다롭고 마지막 안정성을 확인키위해 3~8만달러를 호가하는 침팬지 4~10마리를 사용해야하기때문이란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예방접종이 대중화하려면 접종비용이 3천원정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것이 대부분 임상의들의 의견이고보면 B형간염백신의 접종엔 문젯점이 따른다. 따라서 B형간염백신은 우선순위를 가려 꼭맞아야할 사람만이 접종해야 할것이란 설명이다.

1회 3萬~5萬5千원 일반화 힘들듯

新生兒등 우선순위 가려 접종을

잘 알려진대로 바이러스성간염은 크게 A형과 B형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고있다. 최근엔 이밖에 2종의 간염바이러스(F형과 H형)와 콕사키바이러스, E·B바이러스등도 간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만성간염과간경변, 나아가서 간암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간염B형바이러스이다. B형간염환자의 10%정도가 만성으로 넘어가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간염바이러스감염률은 10~12%정도. 이중 90%정도가 간염B형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엔 B형간염환자가 매해50만명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4백만명 정도가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보균자인 셈이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엔 성인의 45%정도가 B형간염바이러스에대항해서싸울 항체를 몸에지니고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무턱대고 비싼 B형간염백신을맞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자가면역으로 이미 항체를지니고있는 사람이 값비싼 백신을 규정대로 다 맞을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이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1회의 추가접종으로 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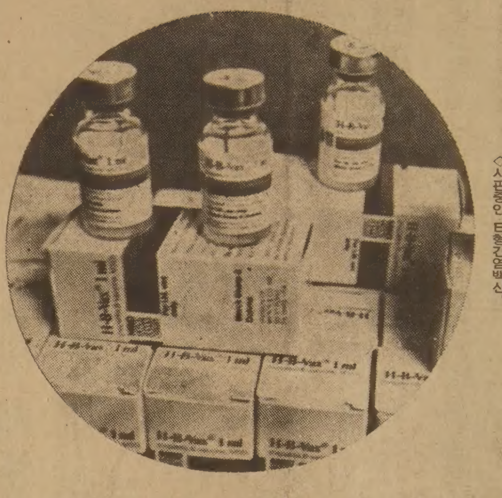
몸안의 항체는 방사면역법(5만원)으로 상세히, 수동혈구응집법(2천원정도)으로 대충 확인할수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선 신생아 모두와 어른에선 간염B표면항원이 없으면서 이 표면항원에 대한 항체가 없는 사람만이 규정대로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염B백신 체조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77년 서울대 의대 내과 金丁龍교수에 의해 개발되어 녹십자회사가 이를 받아 국산화를 서둘고 있다. 그러나 칩팬지를 이용한 안전성실험등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쳐 5년이 지나도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B형간염이 어느나라보다 문제가되어있는만면에 B형간염백신을만들수있는 자원(감염된 혈액)을 풍부히 갖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과 일본등에서 이자원을 우리나라에 지원 요청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산간염 B백신개발을 위한 산학협동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아쉽다하겠다.

〈도움말=▲金慶浩녹십자중앙연구소장 ▲金丁龍서울대의대교수 ▲朴東喆 대한의학협회 공보이사 ▲李柱源보사부보건국장 ▲鄭喜泳 가톨릭의대 교수〉

【李光榮기자】



◇시판중인 B형간염백신。

국민健康위협…각계의견 종합 特別法만들예정

法定 傳染病 지정

『오는 정기국회엔 B형간염을 법정전염병으로 정하려는 특별법을 議員立法할 계획입니다』 민정당 당이념연구 제3실장 李祥羲의원(사진)은 민정당이 B형간염을 법정전염병으로 정하려는 것은 복지국가건설이란 당이념과 부합하기 때문이라 했다.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면 국가가 예방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는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사회환경은 많이 달라졌지요』

李의원은 따라서 법정전염병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뀌어져야 할것이라 했다.

B형간염은 엄연히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

성인 10명가운데 1명정도가 보균자 인데다 매년50만명정도가 이병으로 고생을 하고있고 이중 10%에 달하는 5만명정도가 만성간염으로 악화, 이가운데 상당수가 간경변과 간암에 걸려 생명을 잃고 있다.

李의원은 B형간염이 아직 뚜렷한 치료법이 개발되어있지 않고 예방백신이 개발되어있기는 해도 값이 너무비싸 국가가 모든사람에게 무료로 놓아줄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엄연히 많은 국민이 실제로 이병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볼수없는 일이라 힘을 주었다. 민정당은 B형간염을 법정전염병으로 정하려는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은 정책을 다루는 보사부 당국과 보건분야의 전문가를비롯 일반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우리의 현실에서 B형간염을 퇴치하는데 바람직한길을 모색하려 합니다. 그래서 B형간염퇴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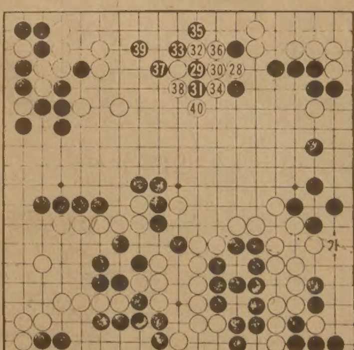
李의원은 이를위해 결핵퇴치를 위해 만든 특별법형태를 구상중이라 했다.

【光】

第13期 名人战 挑战5番棋

第4局第9譜 128~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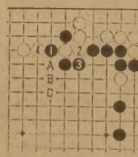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3敗〉 (각5시간·덤5집반)



白28에는 참고도처럼 黑1、3의 평범한수단이 가장적절했다。비록 白4의강수는 당하겠지만 이바둑에서는 「A」「B」「C」등이 선수여서 중앙黑이 두터우므로 黑5를 실전보의 「가」에 젖히면 미세한대로 黑의승리는 확실했다。

그런데 갑자기 黑29。이것이 바로 대세판단을 그르친 문제의한수일듯이야。하기야 도전자로서는 名人이 물고늘어지는바람에 승부를 단숨에 결정지으려 했을지도 모른다。그리고더욱 黑29는 엷은곳에 뛰는 맥점。승부에 관계없이 한번 멋지게 두고싶은 곳이기도 하다。

白、찬스를 잡다



하지만 名人은 그제까지 참고 기다리던 찬스를 잡은적。예서부터 반격의 강수를 연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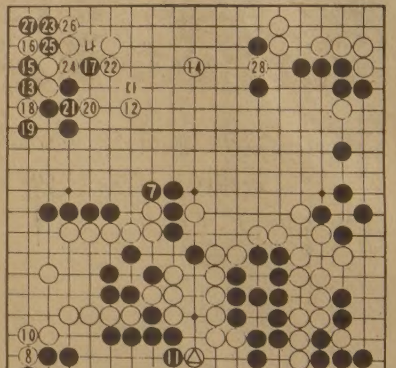
白30、32가 그출발이다。이제와서는 黑도 33의도전은 기호지세다。그렇지만 일은 이미 저지른뒤이며 첫째 싸움터에는 적의수가 편보다 많아서이른바 衆寡不敵。게다가 白40으로 두이점을 잡아낸것이 흔히 말하는 거북이빵따냄으로 60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名人의 잔뜩찌푸렸던 얼굴에 안도의기색이 나타나보인것도 바로 이때부터의 일이다。

【一凡】

第13期 名人战 挑战5番棋

第4局 第8譜 107~128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각5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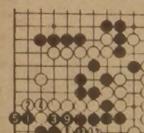


趙南哲8단은 迎日嘉호텔 소강당에서 金鶴洙이사는 시내의 한국기원포함지원에서 각각 속보해설회를 가졌는데 마침 좌상귀에서 黑13이하 27로 「이변」이 발생하여 관람객들 어리둥절케 했다。말을 안했지만 이순간바둑은 黑의승리로 급방 끝난다」고밈은것은 확실해 보였다。

이에앞서 黑7까지로써 여전히 대세에뒤진 白은 8、10으로하변을위협、일단선수를 잡아놓았다。白8로는 △표에서「가」로 달려가서 黑을잡아보고싶지만 참고도의 黑1이하13이면白8、10두점을잡고 수월히 살아버린다。

문제는 白12다음 黑13때 15자리에 받아주지않은 白14에서발생했다。이곳

左上귀의 異變



에는 白13이 먼저 13이자리에 내려서는 선수로내기가 남아있었지만 白15를 예상한 도전자는 이거뻔뻔이냐는 듯이 黑15이하로 白집을 온통 도려내 버렸던 것이다。

수순중 白22로「나」면 黑「다」로 차단당하여 白두점을 잃고 이른바 망한꼴。어차피 망할바에는 귀를 주는 대신 白28쪽에서 최후일전을 벌여보겠다는 名人의 비장한 승부수였다。

때는 하오6시30분。창밖은 아직도 환한데 名人의 낯에는 어둠이 깔린다。

【一凡】

"對日관계再검토를"

學界·政界·社會단체등 강력주장

日本역사교과서 歪曲문제를 시정키 위한 정부의 對日자세와 관련, 政界와 학계 그리고 각 사회단체등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할것은 물론 차제에 韓日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

이들은 특히 日本교과서왜곡문제와 관련한 일본文部省의 통보내용이 문제된 왜곡내용을 시정하려는 자세보다는 高潮되고있는 한국국민의 對日감정을완화해보려는잔꾀에불과하다고분석하고있다.

民韓黨은 31일 日本교과서왜곡과 관련,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주축하고있는 정부의 움직임을지적하면서국민여론에부응할수있는강경대응책을 조속히마련할것을촉구했다.

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타협에의해 해결될수없는 중요한事案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측이 현시점에서 외교적으로 적히 타협해나갈 자세를보인다면 국회에서 그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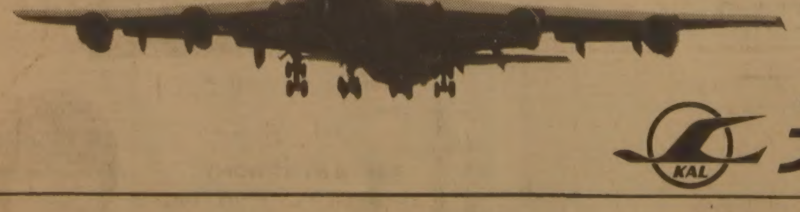
日의 武力增强계획 北傀、敏感반응

【서울=聯】北傀는 29일 日本이 최근 공공연히,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쟁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日本군국주의자들의 무력증강과 전쟁준비책동은 韓半島와 아시아의 정세를 『더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있다』고 맹렬한 對日비난을펴고 나섰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大韓航空만이 每週 16回 韓國으로 出発합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NON-STOP 運航
每週 3回(水·金·土) B747SP



편명 / 출발일	KE011 水金土	KE001 火木土日	KE015 火木日	KE050 月金	KE007 火木金*日
뉴욕					23:55
로스앤젤리스	14:00	10:00	23:20		
앵커리지			▽		02:15 03:40
호노루루		12:20 13:20		02:20	
동경		16:10 17:20			
서울	19:00	19:30	06:40	06:50	06:30
도착일	木土日	水金日月	木土火	火土	木土日火

편명 / 출발일	KE012 水金土	KE002 月水金土	KE016 火木日	KE060 木日	KE008 火木金*日
서울	16:00	18:00	21:30	20:30	19:00
동경		20:00 21:30			
호노루루		09:40 12:10		09:50	
앵커리지					08:30 10:10
로스앤젤리스	11:00	20:20	16:30		
뉴욕					21:50
도착일	水金土	月水金土	火木日	木日	火木金日

▽앵커리지 급유 경유 ＊KE007, 008 금요일 출발편은 6월1일부터 증편운항

정성껏 봉사하는 우리민족의 날개—
KAL 大韓航空

대한항공 ☎ (416) 862-8250
390 BAY ST. SUITE 720,
TORONTO, M5H2Y2

★ 자세한 것은 대한항공이나 각 여행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여행사 535-6004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제일여행사 535-2377 ● 한국여행사 531-4607

木浦「任意분업」한달째 "不渡"

醫師처방전 1件도 發行안돼

病·醫院사전準備 손발안맞아

2종보험 시범사업지구인 전남 木浦지역에서 의약「임의분업」에따른 처방전발행이 지연되고 있다. 보사부당국과 의사회, 약사회측은 의약분업을 둘러싼물의끝에 7월1일부터 병의원이 원외 약국에 대해 처방전을 발행키로 했으나 1개월이 지난 31일까지 단1건의 처방전도 발행되지않고있다.

처방전발행이 이처럼 지연되고있는것은 병의원과 약국양측이 모두사전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병의원과 약국측은 그동안의 협의과정에서 약국측이 3천2백여가지의 보험약품을 모두구비하기가 불가능할것으로 결론, 그중 병 의원에서 가장많이 쓰는 4백여가지의 약품만을 선정, 8월1일부터 이 약품들에대해서만 처방전을 발행키로 합의했으나 준비가되지않아 처방전 발행은 또다시 연기되었다.

한편 의사회측은 처방전을 발행할때 의사가 기입해야하는 항목20가지를 간소화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郵票판매·우편물 接受등 資格갖춘 個人에도 委託

국무회의는 30일현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우표류의 판매, 우편물의 접수, 우편환의 발행및 지급등의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도 위탁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법안은 이같은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을수있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 또는 자치관리기구▲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시장법에의한 상설시장개설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 우표류판매등을 위탁받는 자에게는 우표류의 가격을 정가보다 할인하여줌으로써 이윤을 보장하는한편 수수료도 별도로 지급하고 필요할때에는 국가사무용품도 무상으로 사용케하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朝鮮語學會사건 발단은 나의日記帳

"40년恨"…입열다

그때도歪曲…學者 수십명受侮

당시永生女高生 朴英姬씨

일본은 40년전에도 왜곡을 했다. 그들은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했고 선량한 국민들을 끌어가 고문을 일삼았다.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모두가 잘아는 사실이다. 일본의 국어탄압의 대표적예가 조선어학회사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여학생의 일기장」의 주인공 朴英姬씨(58·서울 西大門區 延禧洞 436의9)가 40년만에 입을 열었다.

「贖罪」·회한이 憤怒로
"國語썼다가 꾸중들었다"귀절
日語못쓰게한者 누구냐 拷問

요즘 일본교과서 왜곡소식을 듣고 참을수가 없어 40년간 응어리졌던 한(恨)을 털어놨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수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증인이 있는데…』朴씨는 아픔과 분노에 어쩔줄 몰라 했다.

朴씨는 그동안 혼자 속죄하며 살려고 누구에게도「조선어학회 사건」은 입에 올리지않았다. 문제의 일기장의 주인공인줄알고 여러곳에서 찾아왔지만 한사코 입을 다물었다.

부군 李晁錫씨(61)를 제외하고는 장성한 아들 딸도 모를 정도였다. 철문처럼 굳게 닫혔던 입이「일본교과서의 왜곡」으로 열린것이다. 더구나 이 8월은 40년전 그가 일본경찰에 끌려가 한 달내내 닥달을 당한 달이라 입을 다물고만 있을수는없었다.

朝鮮語學會사건은 참으로 우연하고 사소한 일에서비롯됐다. 42년7월 함남 洪原邑 前津정거장에서 朴씨의 삼촌 朴炳燁씨가 친구 池章逸씨를 만나러 나갔다가 일본인형사 후까자와(深澤)의 검문에 걸렸다. 明治大 商科를 나와 反日감정이 높았던 朴씨는형사의 물음에 한국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용이 강요되던 때라 朴씨는 당장,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렇지 않아도 朴씨는 평소 洪原세도가의 아들로 그들의 미움을 사고있었기 때문에 덫에 걸리거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꼬투리를 잡기위해 가택수색을 했다. 朴씨가 永生여학교 2학년때쓴 일기장 2권을 발견하고 큰 전리품이나 얻은듯 가져갔다. 한국인형사 安正默은 일기장 내용중에서『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는 부분을 찾아냈다. 원래의 뜻은 조선어를 썼다가 혼이났다는뜻인데 그들은 일본어를 사용하다가 혼이난것으로 해석, 朴씨를 연행했다. 그때 나이18세.

『그들은 꾸지람을한 선생이 누구냐고 다그쳤어요. 열흘간이나 정신없이 몰아쳤지요』 그들은 朴여사가 말을듣지않자 일기장에 이름이나온 永生여학교의 친구 4명까지 연행했다. 朴씨는 할수없이『철없을때 쓴것인데 조선어를 국어라고 썼다』고 자백했다. 전쟁말기에 조선사람을 잡아넣기에 혈안이된 그들이 귀담아들을리 없었다. 형사들은 동급생인 崔順南 李順子 李城姬 鄭仁子를 심하게 매질했다. 고문과정에서 永生여학교에근무하다 조선어학회로 자리를 옮긴 丁泰鎭선생과 공민교사 金學俊선생의 이름이 나왔다.

그들의 고문은 상상을 초월했다.「고춧가루를 먹인다」「비행기를태운다」는등 각가지 위협을하며 자술서를 반복해서 쓰게했다. 두선생의 이름을 얻자 한달만에 朴씨를 풀어주었다.

朴씨는 43년 永生여학교를 졸업했다. 졸업후는 洪原邑에서 삼촌과 함께 파묻혀 살다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온 민족이 기뻐한 해방도 처녀의 가슴에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丁泰鎭선생이 일인들의 잔학한 고문에 못이겨 몸담고 있던 조선어학회를 反日단체라고 허위자술서를 썼고 이로인해 李克魯 崔鉉培·金允經·鄭寅承씨등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던 국문학자와 지식인 40여명이 끔찍한 옥고를 치렀으며 李允宰·韓澄선생은 옥사했다』는 소식이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제동급생인 崔順南 李順子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았어요』 며칠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삼촌과 죄책감에서 부둥켜안고 울었다. 본의는 아니었지만 너무나 큰사건을 저지른 부끄러움에 사로잡혔다. 그때부터 그의 입은 무거워졌다.

朴여사가「문제의 일기장」의 주인공이란 사실이 글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75년 국문학자 李熙昇씨가 한국일보에「나의 이력서」를 연재했을 때다. 삼촌朴炳燁씨는 죄스런 마음에서 李박사댁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저와 삼촌은 李박사를 초대해 점심을 같이했어요. 李박사는 잠잠히 듣기만 하셨읍니다』 李박사는「나의 이력서」중 조선어학회 사건을 쓸때 朴여사가 세상에 알려지는것을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朴英玉」이라고 이름자를 바꾸어 썼다. 78년「오늘을 사는 生命」이라는 수필집을 낸 全相弼씨(83·前국립중앙도서관장)도 朴씨에대해 상세히 쓰고있다.

朴씨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아무 죄없이 옥고를 치른 분들이나 가족, 특히 옥사한 분들의 가족에게 누구도 탓할수없는 이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다며 말끝을 잇지못한다.

『저도 두아이를 키운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 조선어학회수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시달렸겠어요. 만일 해방이 안되었다면 우리말에 대한 명맥도 어떻게 이어졌겠어요. 어제 삼촌과 전화로 입을여는 문제에대해 의논했어요. 굳이 피하지말라고하시더군요.』

그는비록 평범한주부이지만 뭔가 사실을 밝히는데 보탬이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속시원한 대응책이 없는것을 아쉬워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지만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日本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저처럼 이름없고 힘없는 백성이 당한 설움과 아픔을 40년동안 쌓아온 피맺힌 恨을 정부가 풀어주지 않으면 누가 풀어주나요. 이젠 저를 포함한 국민모두가 당당히 살아야하지 않을까요』 朴씨의 표정은 진지했다. 【崔成子기자】

◇40년만의 생생한 證言 1942년 한여름 조선어학회사건이 발단되었을때 朴英姬씨의 모습. 당시 18세로 함흥 永生여학교 4학년 이었다㊤. 역사의 진실과 日本교과서의 왜곡을 밝히고 싶어 40년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다는 일기장의 여주인공 朴英姬씨㊦.

日大使館 폭파脅迫

釜山·光州선 歪曲규탄大會 열어

30일 하오7시50분께 서울 鍾路區中學洞18의11 주한일본대사관에 마에다대사를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경비를 강화했다.

대사관 경비원 정기석씨(40)에 의하면 이날협박전화는 50세가량의 남자목소리로『마에다대사는 한국의 적이니 살해하겠다』『일본놈은 모두 돌아가라』고 협박했다는것.

또 이날 하오3시30분께도 30대후반의 남자목소리로『하오7시30분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왔었다.

帝國망령 火刑式도

【光州】日本교과서왜곡을규탄하는 국민시위가 전남지방에서도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대한노인회 光州市東·西·北區 지부회원 5백여명은 31일상오10시 光州공원 광장에서「일본제국주의망령화형식」을 갖고『일본은 교과서 왜곡사실을 즉각정정하고 각료들의 잇단망언을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화형식에서 林在俊동구지부사무국장(59)은 개식사를 통해 일제의 망령이 교과서왜곡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는 주권을 찾기위한 3·1독립운동사건을 한국민의 정당방위로 인정해야하며 일본인의 반성을 촉구하는 뜻으로 일제망령 화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鄭】

老人대학생들까지

【釜山】부산시 비둘기노인대학학생 1백여명은 31일상오12시 부산東區 佐川3동68 새마을회관에서 일본역사 왜곡규탄대회를 갖고 일본정부는 왜곡된 역사를 시정하고 일본각료의 망언을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규탄대회에서 회장 김정목씨(69)등 1백명의 노인학생들은『일본은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3·1운동을 폭동이라니 한심한 노릇이나』『신사참배 강요가 부끄럽지않느냐』는등의 구호를 외친후 일본측의 시정을 촉구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鄭】

◇아쉬움을 남긴 장마가 걷히고 본격적인 한더위가 시작됐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농작물은 알찬수확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방학을 맞은 꼬마들은 즐겁기만하다. 【경기高陽郡神道邑花田里에서 韓隆 기사찍음】

장마슬며시 가고 全國이 32~33度

길지않은 장마가 물러가고 8월의 본격적인무더위가 시작됐다.

중앙기상대는 31일 우리나라는 그동안중·남부지방에 자리잡고 산발적으로 소나기성비를 쏟던 장마전선이 소멸되고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권에 들게됐다고 밝혔다.

기상대는 이에따라 앞으로 당분간 전국이 32~33도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가운데 8·9일쯤에는 한두차례 비가오겠으며 25일을 전후해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또는 소나기가 내리고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상대는 또 이달중순과하순에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할것 같다고예보했다.

◇8월의메모
▲8일=立秋 ▲15일=光復節 末伏 ▲21일=中·高개학 ▲23일=處暑 ▲25일=七夕 ▲26일=국교개학

釜山 美문화원事件 내일 結審공판

崔基植신부등 釜山美문화원방화및 불온유인물 살포사건 관련피고인 16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상오10시 釜山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女文泰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담당 재판부는 이사건의 결심공판을 당초 7월30일로예정했었으나 변호인측이 변론준비등을위해 연기를 요청, 받아들여진 것이다.

선고공판은 11일상오10시.

여성도起重機운전 就業제한大幅완화

勤勞기준법施行令

국무회의는 30일 여자의취업금지 직종을 현행 30개에서 6개직종으로 축소, 여성의 취업기회를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여자의 취업이 금지돼있던 ▲기중기운전▲용광로, 금속용해로또는 전기로의 작업주임▲적재능력 2톤이상의 화물용엘리베이터 또는 높이15m이상의 콘크리트 엘리베이터 운전▲동력에 의한 토목건축용 기계또는 선박하역용기계의 운전▲직경 35cm이상의 벌목작업등 24종의일은 여자도 할수 있게된다.

마을金庫돈·千만원 횡령한 女직원拘束

【順天】光州지검順天지청은 31일 마을금고돈 1천여만원을 빼내 착복한 전남寶城郡筏橋邑 중앙마을금고 전경리직원 金貞淑양(20·寶城郡筏橋邑筏橋里871)을 업무상배임등 혐의로구속했다.

20代 殺人용의자 보호실서 自殺

【全州】31일새벽 3시께 전북扶安경찰서 보호실에서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돼 구속영장대기중이던 李鉉燁씨(24·전북扶安郡扶安邑內蔘里632)가 호주머니속에 감춰두었던 극약을먹고 그자리에서 숨졌다.

자살한 李씨는 永同邑 J·C회장 김대섭씨(32)를 살해한 혐의로 공범인 姜信主씨(24·扶安郡扶安邑內蔘里339)와함께 30일 하오 전남光州市北區中山洞292의1 오모씨(25)집에서 검거됐었다.

李씨등은 지난4월11일 새벽2시30분께 아직 검거되지 않은 金모씨(24)등 2명과 함께 충북永同邑 梅川里10 0 김대섭씨(35)집 안방에 스타킹으로 복면을하고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다 金씨가 이를 거절하자 각목으로때려 숨지게한후 금목걸이1개 현금16만원등 1백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었다.【船】

拳鬪할아버지

"紅코너…" 링·아나운서 金裕昌씨

빅게임의「主禮」…살아있는 拳鬪史

『홍코너-, 洪吉童-, OOkg, 한국OO급챔피언- 洪吉童-』

낭랑한 목소리로 길게빼는 링·아나운서의 개전포고를 신호로 권투경기장의 열기와흥분은 일렁이기시작한다.

빅게임마다 빠짐없이 마이크를잡는 링·아나운서의 챔피언 金裕昌씨(69·사진·한국권투위원회 랭킹위원).

링·아나운서의 역할은 개전을알리는 신호이기도하지만 운동경기로서의 권위를 불어넣는 예식이기도하다. 金씨는 TV로 중계되는 거의모든 권투경기에서 늘「주례」를 맡아 팬들에게는 선수보다 오히려 친숙한 존재다. 거리에서 만나는 꼬마들도「권투 할아버지」라며 뒤를 졸졸 따른다.

「권투 할아버지」는 18세때 권투를 시작, 한평생을 링 주변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권투계의 최고원로다. 아마선수, 프로선수를 거쳐 프러모터 매니저, 권투단체 임원등 권투에 관해서라면 안해본 노릇이 없다. 젊어서 한때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큰 돈을 만지기도했으나 세상만사중 권투만큼 화끈한것이 없어 다시 권투계로 돌아왔다고한다.

그는 일제치하에서 끼니마저 없는 불우한 젊은이들이 도장에 모여말못한 恨의 주먹으로 샌드백을두들기던 초창기 권투계의 울분과 그후 세계챔피언이 속출했던 한국권투의 영광을 증언하는 한국의「권투史」다.

왜정때는 한국청년의 울분에 찬 주먹이 일본까지 제패하게되자 일제는 1943년 권투를「敵性경기」라는 이유로 금지시켰고, 그때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샌드백만을 상대로 혼자서 주먹단련을 했었다고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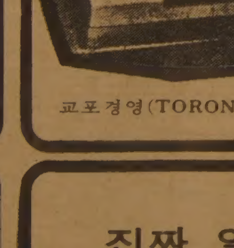
개전을 포고할 때마다 관중들은 고함을지르며 열광하지만 金씨는「후배선수들의 경기를 붙인다」는 엄숙감에 사로잡혀 아무리 더운날에도 늘 정장에 나비 넥타이 차림으로 경기장에 나간다고한다.

그는 개전벽두에 선수를 호명하는 자신의 억양과 목소리의 길이가 미국보다는 길지만 일본경기장보다는 짧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승부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법이지요』 한국권투의 마스코트상은 金씨의말에서 진리를 느낄수 있었다. 【金薰기자】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냉면 짜장면·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 532-0602
※일요일은 휴업 김 신우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영(TORONTO 15년 경력)분납가능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오후2시~새벽2시
금: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531-0277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425-5656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초록 봉황大旗는 어디로…

北一·信一高 첫날 맞붙어
초반 群商·邱商 對決도

◇高校야구"전원집합" 전국54개팀. 봉황의 主役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3일 하오 서울 운동장서 거행된 입장식예행연습.

고교야구 總決算 팬들 벌써흥분

12번째 草綠 鳳凰大旗의 주인은 누가 될것인가. 모든 팀에문호를 개방,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하는 鳳凰大旗대회는 지난파란과이변의 드라마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신예 川谷과 北一의 신화가 그속에서 피어났고 鳳凰大旗우승을 열망하는 많은 팀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신화를 준비하고있다. 湖南勢를 대표하는 群山商高, 球都 釜山의 총아 釜山高, 창단3년만에 鳳凰大旗를품에 안았던 [illegible] 北一高, 정상 10년아성을 지키고있는慶北高 [illegible] 들 4개팀들은 82년고교 [illegible] 시즌 전반을 장식, 이미 鳳凰大旗대회의 판도를 뒤 [illegible] 강호들로 주목받고있다.

釜山高는 금년 최고의 [illegible] 얻고있는 좌완 에이스 [illegible] 의 활약으로 시즌 첫대회인 대통령杯를 제패했다. 79년 황금사자기대회 이후 처음 전국정상에 복귀한 釜山高는 자신만만하게 鳳凰大旗 첫 패권에 도전하고있다. 그러나 만만찮은 적수인 全州高가 3일 1회전서 길목을 지키고있다.

지난해부터 돌풍을 일으키고있는 群山商高는 에이스趙啓顯의 성장으로 더욱 탄탄한 전력을구축, 금년 청룡기대회에서 우승했다. 鳳凰大旗3회전이상을 돌파해보지 못한 치욕을 씻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群山商高 [illegible] 시 湖南의 강자 光州商高와 4일 1회전서 격돌한다.

[illegible] 차례의 우승을기록했던 [illegible] 鳳凰大旗대회 11년동안 3 [illegible] 우승팀慶北高도 만능스타 柳明造의활약으로 금년처음 홈구장서 대봉기를 획득했다. 鳳凰大旗서도 그저력을 발휘할것으로 보인다. 慶北高 [illegible]

[illegible] 鳳凰大旗대회에 파란을 예고하고있다. 【方錫軥기자】

봉황대기 1·2회전 중계일정(1일~8일)

일자	대전	중계 채널및 시간
1(일)	휘문—진흥 신일—북일 배재—포철공	KBS 2TV상오10시50분 KBS 1TV하오 1시30분 KBS라디오서울 KBS 2TV하오 3시55분
2(월)	인천—마산 덕수상—북평 목포상—대구 대전—경기	KBS 2R하오2시 KBS제1TV「고교야구중계석」(밤11시30분)
3(화)	전주—부산 인천체—세광 오산—성광 공주—장충	KBS 1R 하오2시 KBS 1TV「고교야구중계석」(밤10시50분)
4(수)	경북—광주상 원주—중앙 경주—명지 강릉—보성	KBS 2R 하오2시 KBS제1TV「고교야구중계석」(밤10시50분)
5(목)	군산상—대구상 서울—동래 춘천—부산상 부산공—청주	KBS 2R하오2시 KBS제1TV「고교야구중계석」(밤11시20분)
6(금)	재일—충암 경남—경기상 선린상—제물포 강릉·보성 승자—마산상	KBS라디오서울하오2시 KBS제1TV「고교야구중계석」(밤10시50분)
7(토)	휘문·진흥 승자—동산 덕수상·북평 승자—목포상·대구 승자	KBS 1TV하오1시10분 KBS 2TV하오 4시40분
8(일)	배재·포철공 승자—부산공·청주 승자 경주·명지 승자—대전·경기 승자	KBS 1TV하오 1시40분 KBS 2TV하오 4시40분

<우천시 변경될수 있음>

초록빛 大饗宴

스포츠隨想

劉賢鍾 <소설가>

"게임도人生도 단한번뿐…같은것 未完의 젊음은 逆轉의 眞實더해"

삶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단한번의 기회(機會)라고 했다. 그래서 삶이란 〈플레이 볼〉이 선언되면 경기는 진행되고 그 경기는 중단될이없이 마지막으로 머리에 흙더미를 둘러쓰고 땅속에 묻힐 때에야〈게임세트〉되는 셈이다. 〈경제는 유목이다〉 그런말들어서 한부로 써먹기는했지만 그 말의 참뜻이 뭔지 제 배우고싶으니 지나간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새로 살겠다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경기를 망치면 망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중요한것은 그 단한번의 기회를 어떻게 값지게 성실히 살아가느냐 하는것이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충분히 잡을수 있는 공인데 비가 약간 뿌려 발밑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공을 떨어뜨려 삼루주자를 생환 시켜 역전패를 당하게 됐는데 그 실수를 한번만 봐주고 다시한번 이전의 볼카운트에서 새로 해줄수 없겠느냐고 통사정할 수 없는 것도 운동경기이고 야구이다.

단한번 주어진 기회(제임)를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멋지게 승리로 이끌수 있느냐 아슬아슬하게패자가 되기도하고 승자가되기도 하는 멀리는 긴장과 선수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뭉클하는 감동을 받게된다. 부상당한 발로 전력질주하여 홈에 슬라이딩, 대세를 뒤집을수 있게 됐다는 기쁨의 표정을 지으며 일어서려다 발목이 돌아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가야하는 박노준의 모습에서 우리는 책임완수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수있지않은가. 위기에 몰려 좌절하는가 하면 그것을 딛고 놀사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의지의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점철되는걸 보노라면 선수들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아닌가 착각케 하기도 한다. 그때문에 더욱 무아의 경지에 몰입하게 되는지 모른다.

흥분을 만끽하기 위해 야구장을 찾게되고 날은은 지환공에 내 운명을 걸기도 하며 열광하는 것이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기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때려냈다는 베이브·루드의 말처럼순간순간의 변화에 진실을 다하는 고교야구가 성인야구보다 더 매력이 있는것은 미완(未完)의 젊음이 연출하는 극적인 경기 내용 때문이다.

9회말 2사후 만루의 찬스에서 4번 타자가 타석에 등장했다. 안타 한방이면 역전이 가능한 숨막히는 순간이다. 수비측에서는 역투를 보인 투수가 비장한 모습으로 서 있다. 삼진으로 요리하는가 맞혀서 잡는가…대체 저 투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위기를 자초한것은 21번을 데드볼로, 다음 번은 포볼로 내보내면서부터였고 우승의 문턱에서 갑자기 흔들려 볼컨트롤이 안되고 있다. 이쯤되면 투수의 응원자는 가슴이 떨려 어깨로 숨을 쉬어야할 정도이다. 성인이되면 이런 정도의 위기는 노련한 경험으로 혹은 고래심줄같은 집착력으로 벼락이 떨어져도 꾀죄 하나 깜짝지 않을 든든한 배짱으로 여유있게 넘겨내 승리투수가 될수 있지만 젊고어린 선수에게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여전연승, 방어율이 어떻고 초고교급이 고하며 그 선수에게 기대를 해보지만 결과는 언제나 예측불허. 마치 강력한 우승후보로 자타가 공인하던 아르헨티나가 벨기에에 무릎을 꿇듯 아무도 예상을 못한다. 그때문에 고교야구는 우리를 미치게 하는 모양이다. 그순간에 스타는 탄생하고 우리는 시행착오가 많았던 지난날의 젊은시절을 떠올리며 욕구불만을 유쾌하게 배설하게되는 것이다.

프로야구

OB、三美에 역전…辛勝
琴光玉 9회말 투런홈런도 無爲 6-5

이번 3차례, 초반 열세에 몰렸던 OB베어스가 저력을 발휘, 6회초 5번 鄭宗鉉이 역전타를 날리고, 7회초2死후 3번 尹東均이 쐐승3루타를 터뜨려 31일 三美슈퍼스타즈에 6-5로 승리했다. OB 6번 楊世鍾은 4회초로마운드에 처음 등단한 三美 구원투수 吳文鉉을 강타 좌월 동점 솔로 홈런을 날려 OB 역전승의 발판을 만들었다.

OB는 MBC와 같은 7승2패를 기록, 선두 三星(8승2패)을 뒤쫓고있다.

초반 맹렬한기세로 OB마운드를 두들기며 선제리드를 잡아 仁川홈팬들을 즐겁게했던 三美는 4회말 1死만루 찬스를 2번 金武寬의 병살타로 놓치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후기리그중간전적

순위	팀	승	패	승률
①	삼성	8	2	.800
②	OB	7	2	.778
②	MBC	7	2	.778
④	해태	4	6	.400
⑤	롯데	2	7	.222
⑥	삼미	1	10	.091

三美 4번 琴光玉은 1회말 2死2루에서 선제타점 내야안타를, 3회말 두번째 역전 좌월솔로홈런을 때렸으며 3-6으로뒤진 9회말 1死후 2점홈런을 날려 OB진영의 간담을 서늘케했다.

三美는 2死1루에서 주자 梁承琯이 다음타자 張貞起의 볼카운트 1-3을 포볼로 오인, 2루로 걸어가다가 견제에걸려 마지막 찬스를 놓쳤다.

◇31일전적

▲인천

OB	020	101	200	6
삼미	111	000	002	5

▲홈런=楊世鍾(4회·OB) 琴光玉(3회·9회 삼미)

韓國 臺灣과 첫경기
極東리틀야구

【오오사까(大阪) 30日聯合】日本 오오사까(大阪)에서 3일 개최되는 82년도 극동지역리틀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소년 대표팀은 개막 첫경기에서 이대회 6연패를 노리는 臺灣대표팀과 대전을 벌인다.

臺灣은 지난 68년 이 대회가 창설된이래 12차례 우승했으며 日本이 2차례 [illegible] 다.

이대회는 오는 8 [illegible] 지 라운드·로빈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은 극동지역을 대표하여 8월23일 美펜실베이니아州 윌리엄스포트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81

한국、4強진출 무난
亞洲J축구 中共과 내일대결

【싱가포르31日=千一平특파원】제23회 아시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동부예선전이 31일 하오7시(이하 한국시간)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中共-홍콩간의 B조경기를 스타트로 막을 올렸다.

이번대회는 A、B 2개조로 나뉘어 예선전을 벌인 후 각조 상위2개팀이 준결승전을 벌이며 14일 결승전을 갖게된다. 한국은 2일 하오9시45분 中共과 예선 첫경기를 벌인다.

한국선수들은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있으며 1차목표인 4강진출은 무난할것으로 전망된다.

對中共戰의 예정 스타팅멤버는 姜承鎬(GK) 文元根 金判根 金大暎 兪炳玉(이상FB) 金政根 金興權(이상HB) 李承熙 申連浩 李基根 李大炯(이상FW).

싱가포르 매스컴들은 이번 대회에 남북한이 함께 출전한데다 전력 또한 강해 두팀의 움직임에 큰 관심을 보이고있다. 한국팀의 朴鍾煥코치는 기자회견에서 「B조의 한국과 싱가포르, A조의 북한과 일본이 4강에 오를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최대 강적은 북한이 될것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78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21회대회 준결승전서 한국에 패한뒤 4년만에 출전했다.

또한 제22회대회 동부예선 결승전서 아깝게 3-1로 패해 준우승했던 日本은 2차에 걸친 유럽전지훈련으로 상승세에 있으며 [illegible] 日本은 3일 [illegible] 보다 강해 81년 방콕 제22회 대회때처럼 손쉽게 우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작전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선발 8強에
세계大學축구、加꺾고

한국대학선발팀은 30일 멕시코에서 열린 제7회 세계대학축구선수권대회 2차전서 캐나다에 3-1로 승리, D조1승1패를 기록하고 D조1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1일 A조2위 [illegible] 과 준준결승전을 갖는다.

◇제2차전 ▲D조

한국 3(2-1 1-0)1 캐나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178>

양달 ⑬

『내 버릇 가르칠 생각 말고 집이나 지으라니까』

기욱이 몸전체로 강하적인 [illegible] 풍기면서 수지를 윽박질렀다.

『지붕은 빨갰으면 좋겠어요. 아니 풀빛이라도 상관없어요. 네모 반듯한 슬라브는 싫어요』

『지붕 먼저 짓는 집이 어디 있어? 기초를 닦아야지. 참 터 먼저 잡아야겠군』

『터는 강변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론 강남이 유망하다고 돈푼이나 있는 사람치고 그쪽에 대지 몇평씩 안가진 사람 없다니까 아버님도 어련하실라구』

『강남은 싫어요. 남향으로 강을 바라보는 집을 짓고싶으니까요. 강남에다 집을 지으면 강을 등져야되잖아요? 남으로 강을 바라보는 언덕위에 집을 짓고 남쪽으로 창을 여러개 내겠어요. 방하나는 숫제 남쪽을 유리벽으로 지을테야요. 방은 세개만 있어도 돼요』

『창은 여러개 있어야 한다면서?』

『네. 온종일 볕이 들고 또 어느 방에서든지 강이 보여야 하니까요』

『그 이상한 집이 되겠군』

『방이 하나쯤 더 있어도 무방하겠네요. 놀러오실 식구를 생각해서』

『[illegible] 안생각하나? 아까 고여사가 뭐랬어?』

『증축할수 있도록 터가 충분하면 되죠, 뭐. 터는 넓을수록 좋겠어요. 증축도 할수있고 잔디도 깔고 나무도 심어야하니까요. 나무랑 많이 심겠어요. 숲처럼. 여름엔 녹음을 통해 겨울엔 나목을 통해 강을 바라봐야지. 강을 벌거벗겨 놓고 바라본다는건 악취미예요』

수지는 자신이 왜 그렇게 유치하게 구는지 이해할수없는채 그것을 그만둘수가 없었다.

『아닌게 아니라 넓은 터는 쓸모가 많겠군. 연못이나 분수 같은걸 안만드나?』

『강이있는데요, 뭐. 욕심이 많으면 지옥해져요』

『악, 그런 집은 고상한 여자가 다스려야지』

『마당엔 또 참고도 있고 차고도 있어야 돼요. [illegible] 차고는 뒤란으로 보내야할까봐요. 북쪽으로요』

『아버님한테 말할까. 그런 집을 달라고』

『네?』

『그런 집을 결혼선물로 달라고 할테야. 영감은 그걸 좋거야. 그는 아직도 내 결혼선물의 약속을 안했거던. 자기가 가장 큰 선물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테니 그 정도의 선물은 좋아야 흡족할테지. 부모를 흡족하게 하는 건 자식된 도리거든. 그는 좋거야, 그 집은 우리거야』

그가 낮고 전조한 소리로 장담했다. 수지는 꿈에서 깬것처럼 얼떨떨했고 허전했다.

중천에 뜬 달빛이 그들이 가는길에 은가루같은 빛을 뿌리고 있었다. 먹수강물을 넘어온 거목의 가장귀가 그위에 정갈있는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러나 화제가 끊긴 그늘 사이로 쥣소리가 날것처럼 정감없이 다만 빡빡했다.

수지는 달빛속에서 더욱 영이 강조된 기욱의 단아한 얼굴을 처음보는 사람처럼 살펴보았다.

결핍(缺乏)의 결핍으로 생전 꿈을 필요로가 없는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무섭도록 공허하게 느껴졌다.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유년중고장년모임 :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8: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한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심	주일예배 11:00 수요오후 7:30 12: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금요저녁10:30 수요저녁 7: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4: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전11:0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7: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9:00 성경공부 2:2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수요집회 밤8시 주일오후 4:30	240 Manor Rd.	447-6847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주일오후 2:00 (영어예배)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만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주일학교 3:00 예배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오전)토,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 각종 유화·서양화
●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 특수인쇄 (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가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영유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수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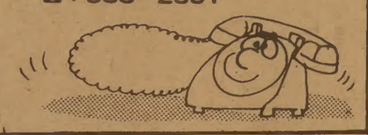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 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45-6792 (Mr. 우)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Part Time Helper 구함(남자분)
직접 내방 바람.
1370 Queen St. E.

한국음식에 조예가 있으시고 약간의 중국음식도 하실수 있는분(Full Time, 남·녀관계 없음)
전화 : 284—5124

미싱 자수사 구함 — Juki Z 자수미싱으로 고급테이블, 침대 Cover에 자수하고 있음. Peace work 환영함.
700 Wilson Ave. Downsview (Dufferin & Wilson)

가게맡아서 하실분 구함(보증금 약간 필요)
매매도 가능. 오타와 지역.
전화 : 1—613—238—3837

Store Helper 구합니다.
(Don Mill & Eglinton)지역
전화 : 425—2905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 분
전화 : 439—6428, 431—7168 (Mrs. 김)

담배 안피우시는 분으로 입주하셔서 두 어린애 보아주시고 가벼운 가정일 돌봐 주실분. 대우 우대함. 목욕탕, 침실 따로 제공하며 매우 분위기 좋은 가정임. 8월20일부터 필요하며 오후 5시 이후에 연락바람.(416)889—7000(Mr./Mrs. Fenwick)타지방에서 문의하실 분은 Collect Call로 하셔도 됩니다.

구직

다운타운에 가까운 곳 또는 West Area
출퇴근하며 아기 성심껏 보아드리겠읍니다.
전화 : 423—3114 (Mrs. 신)

바쁘신 분들을 위해여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아 드리겠읍니다. Downtown지역.
전화 : 651—5388 (Mrs. 채)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매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278—3975

Peterboro.근교 호수에 위치한 아름다운 Cottage Lot. (Water Front)을 급매합니다.
전화 : 929—9849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Variety Store for Sale (Hwy 10×Dundas)
주6일 Open. 주매상 : $4,300
Video Machine에서 월 최저 $1,000 보장.
리스 : 2년 + 5년. 렌트 : $750
가격 : 5만 + 스탁 (Mortgage 가능)
전화 : 276—3266

Store Equipment for Sale
Two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1b) & 기타.
전화 : 746—0107, 727—5902

Variety Store 매매.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주매상 : $9,000이상. 361 Carrville Rd.
Thornhill, ont., Hill Crest Mall 옆길.

Vancouver Downtown 좋은 위치.
단골 고객이 많은 성업중인 Discount옷가게. 건강상 매매.
년매상 : $180,000. 아스킹 : $39,000
리 스 : 2년+3년 옵션.
주6일 영업(10:00 a.m~6:00 p.m)
전화 : 239—2193

Pizza Take Out & Delivery (Downtown Area)
매우 성업중임. 346 Dundas St. E.
Ask for Domenic or Luigi

전망 밝은 모텔 매매
현대식 45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토론토에서 한시간거리에 상업도시에 위치. 10%의 Mortgage
Tom Szymanski
Yanka Realty Inc. 537—4156 or 755—9080

미시사가 초입에 있는 꽃및 Gift가게를 위탁하거나, 판매코져 함.
전화 : 624—7597

한·영 사무용 Type Writer 구함.
Ball Type이면 더욱 좋음.
전화 : 499—3686 (오후 6시이후 연락바람)

Grocery Store (Montreal 지역)
주매상 : $6,000(포도주, Beer, 화초등도 취급)
아스킹 : $63,000 + Stock. 리스 : 3년 + 5년
이층에 5 Bed Rm.이 있으며 뒷뜰에 정원이 있는 일급주택가에 자리한 살림집도 타협에 의해 Rent 가능함.
전화 : 1—514—674—6845 (Mr. 박)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주매상 : $5,000이상. 리스 : 5년 + 5년
361 Windermere Ave. (Jane & Bloor)

Wallpaper & Paint Business for Sale
20년간 성업중인 최고의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
위치 : Kennedy & Lawrence. 아스킹 : $55,000
(매우 바쁘고, 확장 번창하는 Plaza안에 있음)
Store는 Air Con. 장치가 되어있으며 보기에도 깨끗함.
전화 : 266—3151 (Grace Becker)
Royal Trust CORP. OF CANADA REAL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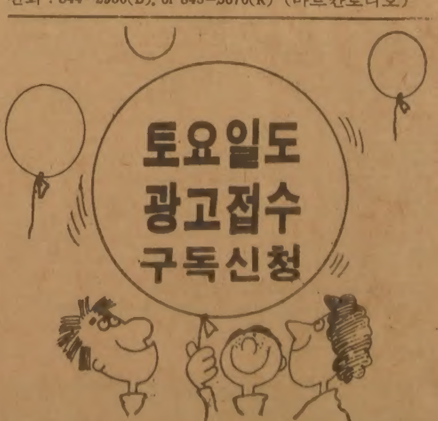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3,300
전화 : 699—4804

▲Two Door(5ft.) Ice Cream 냉장고(중고)
▲8.5 Galon 대형 Slush 퍼피머신(중고)
전화 : 690—2216 (Mr. 최)

Pharmacy & Variety Store for Sale
원하면 건물도 매매 가능함. 주매상 : $10,000
(투자가치가 좋음) 서부지역. 전화 : 781—2560 (Sarkis)

Downtown에 있는 식당매매(가족끼리 하기에 적합)
월수입: $11,000. 아스킹: $65,000(주류면허 있음)
전화 : 844—2950(B). or 845—5670(R) (마르칸토니오)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 ~4
한국일보광고부

가게렌트

성업중인 Grocery Corner Store Business for Rent.
안전하고 발전성있는 투자.(Franchise)
전화 : 259—2123

아파트렌트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325/M.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방세놓습니다. 노인부부 환영함.
Pape 써브웨이에서 1블럭거리
전화 : 282—0236, 466—3764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주장: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킨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